Into the Woods꼬여버린 내 인생, 어디서부터 풀어낼 수 있을까.19살 생일, 나는 홀로 앉아 삼촌의 말을 되새겼다. 삼촌은 내게 늘 말하곤 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니, 검은 손에서 놓지 말고 글자 공부 게을리하지 말라고.나는 제법 착한 아이였으므로, 삼촌의 말을 충실하게 따랐다. 소꿉놀이 대신 목검을 휘둘렀고, 강아지와 노는 대신 말을 탔다. 어머니는 험하게 크면 인생이 팍팍해진다며 나무랐지만, 어머니가 할 소리는 아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돈 안 벌리는 일로 바쁜 사람이었으니까.내가 13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날이 추워지면 왕을 납치한 용을 잡는다고 집을 떠났다. 옆집 아주머니의 호의와 겨울이면 찾아오는 삼촌의 보호가 나를 살렸다.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오곤 했다. 내가 열일곱이 되던 해, 그러니까 삼 년 전까지는.축하해줄 이 없는 생일은 쓸쓸했다. 나는 문을 닫아걸고 집 안에 틀어박혔다."비아테, 너 생일이잖아. 이런 날은 혼자 있기 싫지 않냐?"오지랖 넓은 옆집 한스놈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에 빠져있었다. 하늘에서 종이가 뚝 떨어지기 전까지는..?종이가 내 눈앞으로 뚝 떨어졌다. 우리 집 지붕에 그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었나? 나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에 머리가 아파졌다. 작은 민을, 구경꾼들이 문제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떨어지겠다며 훈수를 둘 옆집 한스나, 혀를 찰 이웃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푹푹 나왔다.내게 골치 아픈 일을 떠안겨준 종이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망할 호기심이 들었다.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다가 팔자가 꼬인다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는데 어쩌겠는가. 종이를 펼쳐 드니, 무언가를 알리는 내용이었다.[산 아래 집에 사시는 분께.봄볕이 따사로운 오후입니다. 텃밭의 라푼젤은 잘 자라고 있는지요.다름 아니라, 귀댁의 주인장께서 저희 주인님과 19년 전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려 편지를 씁니다.배 속에 있는 아이가 19살 생일이 되면, 저희 저택으로 보내주기로 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필시 이 편지를 보시면 기억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오늘이 마침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따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산속 대저택에서,카를님의 충실한 집사 드림.]나는 이런 계약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책임한 데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언가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 사람들은 아니었다. 설마, 이제까지 19년 동안, 이런 중대한 일을 말할 기회가 없었으리라 믿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비록 멀리 떠나있지만, 이 산속 동네에도 서신은 오갈 수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글자를 읽고 쓸 줄 안다는 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 아닌가.편지의 전달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편지가 귀한 마을이라 배달부는 늘 큰 소리로 편지가 왔음을 알렸다. 주변에 편지를 받아줄 마땅할 이웃이 없으면 문틈 사이에 조심히 끼워놓거나 마을의 대표 노릇을 하는 아이카 할아범의 집에 맡겨두었다. 필시 떳떳하지 못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놈 담 넘듯이 편지를 던진 것이 분명했다.이쯤 되니 편지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 아까워져서, 편지를 갈가리 찢어 화로에 넣었다. 봄이라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해도, 소복하게 쌓인 잿더미 사이로 흰 편지 조각이 비죽비죽 솟아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늘에서 돈이 날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디 쓸모도 없는 편지 따위가 날아오고 난리인가.그 순간에도 옆집 한스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어 한스를 맞았다."대체 무슨 일인데.""아, 너 생일이고 해서."한스놈이 내민 것은 흰 들꽃 한 다발이었다. 우리 집에 저런 작고 예쁜 것을 꽂아둘 화병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일까. 나는 떨떠름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꽃다발을 받아들었다."그래, 고맙다.""아, 그리고 이것도."한스가 등 뒤에서 수줍게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빵 한 바구니였다. 갈색의 표면과 코끝을 간질이는 고소한 냄새가 구운 지 얼마 안 된 빵임을 말해주고 있었다."어휴, 뭘 이런 걸 또."진실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는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고, 꽃다발은 먹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빵은 달랐다. 이 정도면 말리거나 스튜로 끓여서 다음 주까지도 너끈했다."넌 역시 최고의 이웃이야.""어, 어? 그, 그럼 간다."한스의 어기적거리는 걸음걸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한스는 걸음을 옮기다 말고 뒤를 돌아 내게 소리쳤다."생일 축하해!"싱거운 자식. 그래도, 편지인지 경고장인지 모를 요상한 종이 때문에 망칠 뻔한 오늘을, 훈훈하게 장식해주었으니 오늘만큼은 너그러이 봐줄 만 했다. 나는 갓구운 빵과 좋아하는 책으로 행복한 오후를 보냈기 때문에, 편지 생각은 금세 잊을 수 있었다.하지만, 편지의 악몽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평소처럼 옆집 텃밭 가꾸는 일을 도와주고, 건넛집 편지를 대필해주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탁자 위에 곱게 놓인 것은 역시 편지였다. 이번에는 꽃향기까지 났다.’산 아래 집에 사시는 분께.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따님이 홀로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시다면 당황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니, 속히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저희가 정중하게 저택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카를님의 충실한 집사 올림.’정중함을 빌미로 한 협박이었다. 나는 들을 바 없는 계약인데 왜 자꾸 강요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게다가, 내가 혼자 있다는 걸 안다는 게 불안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와서 편지를 남긴 것인가, 아니면 마을 주민들에게 캐묻고 다닌 것인가.그 뒤로 우리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디니 지 않았나 물어보고 다녔으나, 다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는 편지를 아예 마을 공터에 묻어버리고 왔다. 두 번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으면 포기하리라, 하는 기대도 있었다.하지만, 세상만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굴러가겠는가. 그 뒤로 마치 보물찾기 하듯 우리 집 곳곳에서 쪽지가 발견되었다. 그릇 속에서, 창고에서, 내가 읽던 책 사이에서.나의 꿋꿋하고 일관된 무시에도 불구하고, 편지 주인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짝사랑도 이만큼 열렬하지는 못할 지경이었다. 결국, 어느 날은 간만에 늘어지게 늦잠을 자던 내 머리 위로 쪽지가 떨어졌다.[계약자께.이 정도로 친절하게 안내했으면 설명은 끝났으리라 생각합니다.내일까지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직접 찾아가겠습니다.이 경우, 손님 대우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카를]한동안은 집사를 시켜 편지를 쏟아붓더니, 이제는 본인이 나섰다. 이쯤 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눈앞에 쪽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둑이라도 솜씨가 뛰어난 도둑임이 분명했다.더 이상 명분도 없는 도둑이 우리 집과 나를 들쑤시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 저택이라는 데를 가서 한 번 손님 대접을 거하게 받아야겠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석조 저택을 노려보며, 나는 집을 나설 채비를 했다. 꼬인 부분은, 잘라내야 했다.산왕의 궁전에서집을 나서면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한스네가 보인다. 시선을 왼편으로 조금만 돌리면 우리 집과 한스네 집 사이로 나 있는 길이 있었다. 길을 따라가면 숲으로 향했다.길 어귀에서 열 걸음 들어갈 때까지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눈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와의 혈투였다. 낮에는 야생동물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니, 나무를 해치우려고 칼을 챙긴 셈이었다.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영주님 몰래 이곳으로 종종 사냥을 나왔다고 했다. 토끼 한 마리라도 잡으면, 일주일 동안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니, 들킬 위험을 고려해도 나쁘지 않은 장사였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숲속 언덕 위 웅장한 저택이 들어서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지금은 허름한 외벽이 위엄을 훼손하고 있지만, 저택은 스무 걸음 넘게 걸어도 벽 한 면을 둘러보지 못할 정도로 거대했다. 다섯 걸음이면 가로지를 수 있는 흙집과 나무집 사이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집주인의 성격이었다.집주인은 높은 성벽만큼이나 콧대 높은 사람이었다. 제집에 들어온 물건은 아이들이 발로 차고 놀던 돼지 오줌보라도 내어주는 법이 없었다. 성의 주인은 점차 제 영역을 넓히더니 숲까지 장악하기 이르렀다. 밤을 틈타 숲으로 들어선 사냥꾼들은 말을 탄 사내와 마주쳤다. 그들은 사내가 그어놓은 선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집주인은 수도에서도 손에 꼽는다는 마법사였다. 사냥꾼들은 목숨을 걸기보다는, 안전을 택했고, 점차 마을을 떠났다. 우리 부모님도, 그 마법사와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행운의 편지가 가리키는 일도 그때의 조우 때문인지도 몰랐다. 멀리 떠날 거면 말이나 해주고 가지. 원래 받을 돈과 빚진 돈은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머리가 아파지는 와중에 나뭇가지가 눈가를 스치자 고도로 정제된 언어가 튀어나올 뻔했다. 한참을 나뭇가지의 위협에 시달리다 풀려나니, 너른 공터가 나왔다. 그 넓은 공간에 오로지 집 하나 서 있었다. 침을 한 번 살피고 나무문 두드려도 답이 없었다. 열이 올라 돌벽을 한 번 차니 눈물이 핑 돌았다.제일 즐거운 생일날부터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 그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계약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집에 사는 마법사 때문에. 벽 한 번 더 치려니 발이 아파서, 돌벽에 기대 주저앉아 농성에 돌입했다. 해는 기울어가고, 춥고, 배고픈 신세가 처량했다.이거 설마, 계약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무언의 신호인가. 툭툭 털고 일어나 내가 터놓은 길로 집에 돌아가려 했더니, 어디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 집 인심처럼 조그맣게 열린 문이 보였다.지금 이걸,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가.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칼을 한 번 빼 들었으면 한 번 휘둘러 보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성안으로 들어섰다. 허리춤에 칼이 잘 있는 것을 확인하자 마음이 놓였다. 누가 오든지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당황스러웠다. 나 같은 인간은 뱃속에 두 명 정도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늑대였다. 금색 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이, 저녁거리로 적당한지 가늠하는 것 같았다. 혹시 몰라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나 빼고 아무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늑대는, 뜻밖에 고개를 끄덕였다.잠깐, 지금 늑대가 고개를 끄덕인 건가? 아무래도 수풀을 해치고 오는 바람에 눈에 나뭇잎이 들어갔나 보았다. 눈을 비비고 바라보아도, 나를 향한 뜨거운 시선은 거둘 길이 없었다."저, 혹시, 이 집 주인 안 계십니까?""기다리고 계십니다."지금 나에게 우리 집만 한 늑대가 말을 건 것인가. 마법사 집에는 마법이 걸려 있는 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사람들 말이, 마법사는 땅을 가르고 소리 없이 다니며 물을 다스린다는 데, 갑자기 그 헛소리가 신빙성 있게 들렸다.심지어 이 집이 사람들 자는 사이에 조금씩 움직인다는 말도 돌았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이 분명히 이 성이 처음 땅에서 솟았을 때 비해 한 걸음만치 움직였다고 호통쳤다. 그래서 이 집은 움직이는 성으로 불리기도 했다.성을 관리하는 하인이 늑대다. 게다가 말을 한다. 여태까지 들려오는 소문과 일관성이 있었다. 마법사는 대단한 사람 임에 틀림이 없었다. 얌전히 제 발로 찾아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까까지 이 여정이 고되다고 한탄하고 있었지만. 지난 기억은 깔끔하게 잊는 편이 새 출발을 위해 좋았다.흉흉한 소문을 불러일으키는 외관과 다르게, 내부는 넓고 화려했다. 용과 여왕에 관한 설화가 짜인 태피스트리가 벽에 걸려 있었고, 촛불이 집 안 곳곳을 환하게 밝혔다. 촛대는 은색으로, 덩굴과 꽃이 촛불을 받아들고 있었다. 불빛이 어려, 내 얼굴이 비쳐 보이는 게, 비싼 광물처럼 보였다. 하나쯤 떼어가면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 싶어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니, 뒤통수가 따가웠다.고개를 돌려보니 늑대가 두 걸음 옆에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늑대가 먼저 입을 열었다."혹시, 그런 것 처음 보십니까."이 정도의 장식품이면 영주님 성에나 있을 테니, 내가 처음 본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무안을 줄 일은 아니라는 소리였다. 물론, 내가 하나쯤 기념품으로 챙겨가도, 이 집에 흠 하나도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고민하긴 했다. 하지만, 생각과 실천은 다른 문제다."뭐, 처음 보면 안 되나..?""...주인님께 물어보고, 챙겨드릴 수 있으면 챙겨 드리겠습니다."늑대의 뒷모습이 듬직해 보였다. 털에도 눈길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영양 상태가 좋아 보였다. 최소 하루 한 끼는 고기 냄새를 맡은 듯한 뒤태였다. 역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잘 먹고 다니니 남에게 베풀 생각도 하는 것 같았다. 이런 면에서는 늑대가 사람보다 낫다. 물론, 우리 옆집 빼고. 옆집 아니었으면 나는 열아홉 생일까지 혼자 꿋꿋하게 살 남지 못했을 거다.생각으로 흐린 눈으로도 저택의 호화로움은 알아볼 수 있었다. 벽에 걸린 은 방패는 보석이 박혀 실제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옆에는 가느다래서 툭 부러질 것 같은 보검이 보였다. 제아무리 전투의 숨겨진 고수라 해도 사용할 수 없을 물건이었다. 돈을 자랑하는 용도라면 모를까. 일인 가장의 눈에는 십 년 치 식비, 농사지을 땅으로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주변을 하도 두리번거리며 다니느라, 늑대가 나를 불러세웠을 때, 나는 집주인 앞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삼촌이 나를 나무 위에 자주 올려놓는 바람에 간신히 균형과 품위를 지킬 수 있었다. 아직 계약이 정당한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앞에 처량하게 주저앉고 싶지 않았다. 책임질 미래의 내가 있는데 굳세게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살점 남은 뼈도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해보고 이 세상 떠날 수 있을 테니."...늦으셨군요."부당 계약자로 추정되는 마법사가 나를 보고한 첫 말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지킬 예의는 없냐고 말을 뱉으려 했으나, 도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살포시 찌푸린 미간이 어딘가 위험한 매력을 가중하는 미남이었기 때문이었다. 결이 좋지만 한 번 손으로 훑어내려 보고 싶을 정도로 흐트러진 검은 머리칼,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짙은 푸른 눈동자. 고집 있게 선 콧날과 제집처럼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이마. 제 늑대 하인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성난 근육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다.자기 집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창문 맡에 세워두고 조각상 같은 예술품이라고 해도 그럭저럭 수긍할 수 있을 생김새였다. 게다가, 마법사는 귀하고, 덕분에 마법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수도의 귀족들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고로 연회와 같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상황에서 마법사를 고용하기 마련이었다. 마법사가 실력뿐 아니라 외모까지 출중하다면, 마법 의뢰를 청하러 온 시종들로 성을 두 바퀴는 너끈히 감싸고 남을 법했다.이래저래 머리를 굴려봐도, 척 져서 나쁠 것 없는 인간이었다. 얼굴에서 절로 미소가 어우러져 나왔다. 내 눈앞의 인간은 단순히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성질 나쁜 마법사가 아니라, 황금 동상이었다. 적당히 비위를 잘 맞춰주면, 황금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한데, 마법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실로 오묘했다."...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자각은 있는 겁니까?"자기가 불러놓고, 참으로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겠으나. 밉보여서 좋을 게 없는 인물이므로 경련이 나는 입꼬리를 애써 진정시켰다."그럼요, 제게 그렇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보내셨잖아요."지금 저 인간이 내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물론 그 모습도 그림 같았으나, 세상은 얼굴이 다가 아니었다. 지금 눈싸움하자는 건지 자꾸 쳐다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 인간은 얼굴이 한몫 하는 것도 같았지만.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꼴이 참 아름답고 동시에 재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면, 목욕재계를 하고 하늘에 계시는 높은 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그런데 왜 짐을 싸 오지 않은 겁니까?"생각을 정정해야 할 것 같았다. 집에 갈 수 있다면, 높으신 분과 긴밀한 대화를 해야겠다. 아니어도,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생일을 기점으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인 건지 아무 친근한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분이 들어줄지는, 다른 문제였지만."저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물으려고 온 것인데요?""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에게 폐를 끼쳤고, 나는 그 대가로 당신을 받기로 했습니다.""아니,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주고받고 해요? 물론, 당신이 영주라면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저는 당신한테 땅을 빌리지 않았잖아요?"강렬한 인상의 미남자가 한숨을 쉬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처럼 새하얀 종이였다. 종이 한 장에서도 우러나오는 부내에 감탄하고 있던 것도 달리, 의문이 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는 왜 꺼낸 거지?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의 손에 들린 종이에 글자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종이 너머로 빛무리가 보였다. 마법사의 손에서부터 비롯되어 점점이 물결이 번져가는 것 같기도 했다. 잔잔한 수면 위에 돌 하나를 던져넣은 같은 모양이었다. 마법사가 지닌 힘에 감탄한 것도 잠시, 이어 머릿속에 퍼지는 의아함에 원흉을 뚫어지라 보았다."이걸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입술 새로 퉁명스러운 말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간신히 붙들었다. 여러모로 적이 되어서 좋은 것 없는 남자였다. 아랫입술을 꾹 깨문 채, 종이 위에 떠 오른 글자를 노려보았다. 얼마나 대단한 계약인지, 낱낱이 따져볼 생각이었다.산왕의 궁전에서흰 종이가 순간 검은색으로 물드는가 싶더니, 짙은 색조가 한데 모이고 갈라져 제 자리를 찾았다.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마법을 시전한 장본인의 얼굴은 평온하기만 했다.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는 나를 향해 약간의 불쾌감을 표하긴 했지만, 마법으로 인한 피로는 보이지 않았다.보통 마법사들이 펼쳐내는 마법은 아름답지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인내가 필요했다. 마법이 만들어내는 변화 또한 불빛을 쏘아 올리거나 작은 생물을 불러내는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다. 자연히 마법사가 벌이는 마법 자체가 하나의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허례허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개 마법사들이라고 몇 시간씩 진을 빼며 마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고로, 눈앞의 사람이 잘생긴 데다가 유능하기까지 한 마법사라는 결론이 나왔다.탐나는 인재였다. 친해지면 내 한 몸 의탁해도 이 호사스러운 성의 유리창만큼의 해도 가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악연으로 얽힌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마법사를 향한 나의 긍정적인 평가는 오래가지 못했다. 계약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었다.’타인의 사유지에 함부로 침입하여 사유 재산을 갈취한 죄인 베노에게, 자비롭고 명예로운 마법사 카를이.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갈취하는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서를 작성함.도둑은 집주인의 자비에 보답하기 위해, 다음의 보상을 약속함.1. 향후 20년간 집주인의 영토에 침입하지 말 것. 예외 사항: 2번에 명시된 보상을 인도하기 위한 방문.2. 공동 책임자인 크레센시아의 태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집주인에게 넘길 것.2.1. 아이는 향후 5년 이상 집주인의 거주지에 머물러야 함.2.2. 아이는 집주인을 제 군주로 섬기며, 충성해야 함.2.3. 아이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역시 집주인에게 있음.상기의 계약은 지금부터 효력을 발휘함.단, 2번의 경우, 아이가 탄생한 후 맞이하는 19번째 생일부터 유효함.한 해의 마지막 달이 떠오르는 밤.’가장 처음 드는 감상은 귀족 출신의 마법사도 있다고 했는데, 카를이라 불리는 앞의 남자도 그런 경우인가 하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수식어로 가득한 계약서는 작성자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귀족 출신의 마법사도 있다고 들었다. 일례로, 마탑주 또한 헤르니아의 유서 깊은 다섯 가문 중 하나의 일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자신의 가문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귀족들은 자신의 피가 고결한 파란색이라고 믿는 이들이었다.거기까지 생각하니, 눈앞의 사람이 더욱더 의심스러웠다. 귀족 집안에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여 추방당한 사람인지도 몰랐다. 이 경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지만, 크레센시아가 우리 어머니 이름이고, 베노가 우리 아버지 이름인 이상, 이미 더럽게 엮인 셈이었다. 미남이랑 더럽게 엮일 거였으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한숨이 절로 나왔다.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다. 거창한 말로 쓰인 계약서는, 카를이라 불리는 집주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만 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어떤 피해인지는 알 수 없었다. 별것 아닌 일을 부풀린 사기 계약일 수도 있지 않은가.내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라는 부분도 미심쩍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닌가! 장터에서 무 하나 살 때도 5분은 고민하는 나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하물며, 내 목숨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데!"이해가 안 돼요.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계약서를 쓴 거죠?""당신을 낳아 기른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저는 이 계약서를 생전 처음 보거든요.""...라푼젤을 훔쳐 갔습니다."라푼젤이라 하면, 여러 장의 잎이 둘러싸인 형태의 푸른 채소를 말하는 건가? 둥글둥글한 잎사귀가 꽤 귀여운 데다가, 뾰족뾰족한 연보라색 꽃이 피어서 더 정감이 간다는 그 식물? 스튜에 넣어 먹기도 하고, 신선한 상태에서는 잘 씻어서 다른 채소와 곁들여 먹기도 한다는 그 식재료? 고작 라푼젤 한 통에 내가 저 인간에게 종속되었다는 말인가?무언가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저 인간이 안하무인이라 해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사기를 치지는 않으리라. 물론 귀족이라는 작자들은 속이 시커멓고 쪼잔하여 상종하기 좋은 인물은 아니다는 게 귀족과 한번 더럽게 엮여본 사람들의 평이었지만. 그리고, 저 사람이 귀족인지, 어디 구석에서 흙 퍼먹고 살던 인간인지 알게 뭔가. 얼굴로 계급을 정하는 거였으면 왕좌에 앉아도 되겠지만, 얼굴이 계약을 해결해주지는 않았다.나는 감히 폐하까지도 욕 먹이며 들끓어 오르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다. 헛기침 세 번, 심호흡은 다섯 번. 말을 욕지거리로 시작하지 않을 정도의 평정심을 되찾자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지금, 밭에서 자라는 라푼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날짜를 다시 보시면, 한겨울이었습니다.""...지금, 그걸, 말이라고..?"아무리 한겨울이었다고 해도, 채소 하나가 사람 목숨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은가. 물론, 저 건넛집 코넬리아 할머니는 자기가 집 앞에서 키우는 데이지꽃을 꺾는 놈들은 머리를 똑같이 똑 따주겠다고 말하기는 하셨지만. 진심은 아니시리라 생각했다. 이건 절대 내가 지난번에 장터에 가는 길에 무심코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 인생이 그 데이지꽃보다 못한 값어치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한겨울에 핀 라푼젤은 19살의 건강하고 유쾌하며 외모 출중한 데다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검도 다룰 수 있는 여자보다 더 값나간다는 말이지 않은가.이쯤 되니 저 계약서를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런 부당 계약은 무효다. 여기서 더 입씨름하자니, 머리가 아팠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저 계약서를 없애버리면 된다. 마법을 쓸 새도 없이 없애주리라. 나는 귀족들이 사냥에 쓴다는 매처럼 날아서, 먹잇감을 낚아채 내달렸다. 복도는 길고 화려해서, 그 재수 없게 아름다운 얼굴에서 도망칠 구석이 많았다. 복도를 한참 달리다 보니, 조금은 익숙해진 얼굴이 스쳤다."여깁니다."뻔뻔한 얼굴이 손바닥을 내밀고 서 있었다.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은 정겨운 모습이었다. 아마 내가 제 손에 계약서를 얌전히 쥐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번 계약서를 들고 튄 이상, 순순히 계약서를 내어줄 이유가 없었다.나는 남자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발을 떼려는 찰나, 눈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사이로 그 남자의 굳은 표정이 보였다. 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데, 그 남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언가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었다.시선을 천천히 종이로 돌려보니, 어느새 종이는 백색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처음처럼 말끔했다는 소리다. 글자조차 없이, 갓 만들어진 것처럼 새하얗다. 내 실책이었다.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마법이 걸려있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다니. 물론, 마법 물건은 만들기 까다로워서, 마법사라 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인간은 척 봐도 손에 꼽히는 마법사 중에서도 두 손가락 안에 들 법한 마법사였다."...쓸데없는 짓을 하시는군요."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으나, 눈은 싸늘했다. 명백히 나를 비웃는 듯한 반반한 낯짝이 아니꼬와서, 괜한 짓인 줄 알면서도 심술을 부렸다. 계약서를 구겨 그 주인에게 던져버린 것이다."자, 돌려드리죠.""아."짧은 한마디,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눈썹을 위로 치켜떴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구겨진 종이는 주인에게 되돌아 가는가 싶더니, 멈추어 섰다. 종이가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허공에 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남자의 입꼬리가 올라간 순간, 종이 뭉치가 움직였다. 반대 방향으로.너무 순식간이라 피할 새도 없었다. 뭉쳐진 종이는 내 이마를 직격했다. 나무 밑에서 열매 받다가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것에 비해서는 덜 아팠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억울했다. 애완동물도 아니고 왜 내게로 돌아오고 난리인가. 주인은 저쪽인데. 가장 열이 받는 부분은 내 이마를 강타하고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허공에 멈추어 서 있다는 점이었다."괜찮으십니까?""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네요.""말만 잘하는 걸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마음의 상처가 커요.""멀리 갈 것 없이 이곳에서 휴식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 작은 집보다 훨씬 편안할 것 같습니다만."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작은 오막살이 우리 집이 최고인 법이다. 게다가, 비록 생일이 며칠 지나긴 했지만, 언제라도 가족들이 돌아올지도 몰랐다.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이 아니었으면 계속 상종하기 싫은 이 인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집을 통째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그건 싫은데요."만에 하나, 여기 기거하게 된다면, 굳이 그 작은 오막살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 비록, 여태껏 가족과 함께 보낸 추억이 남아 있지만, 추억은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선 적어도 빵 한 줌을 어떻게 며칠간 불려 먹을지 고민하는 구질구질한 짓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내 뺨을 두드렸다. 잠시 이 집과 집주인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나 보다. 굳세게 밀고 나가 나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데. 더는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잘생긴 마법사를 지나쳤다.하지만, 복도는 걸어도 걸어도 끝이 나지 않았다. 아까 마법사의 얼굴에 비웃음 같은 게 떠오를 때 알아봐야 했는데. 스쳐 지나가며 본 마법사의 얼굴에 여유가 넘쳤던 것이 불현듯 생각났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마법사가 나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셈이었다. 이러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오겠다."마법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요."마법사가 뻔뻔하게 양손을 들어 올렸다. 당연하게도, 마법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손바닥에 굳은살과 상흔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무언가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저는 결백합니다.""사기 계약을 해놓고 뭐가 결백해요.""애초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우리 아버지는 왜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가. 평소 사람 좋기로 유명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 못 하는 성질 탓이었나. 어머니가 어디서 일을 만들어오지 말라고 등짝을 내리치실 때 짐작했어야 했는데.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다."이제 서로 피곤한 일은 그만 만들었으면 해요.""저는 아직 멀쩡합니다만."마법사가 눈썹을 다시 한번 위로 치켜들었다. 실소와 함께 고개를 돌리니, 창문이 보였다. 계단을 밟고 올라간 기억은 나지 않으니, 저것도 탈출구가 될 것 같았다. 마법보다는, 그래도, 발이 더 빨랐다. 급하게 벽에 걸린 방패를 빼내어 창문을 내리쳤다. 창문까지 마법에 걸려있지 않은 모양인지, 거센소리를 내며 창문이 깨졌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창틀로 올라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라, 생각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마지막으로 한번 마법사를 돌아보았다. 크게 뜨인 눈에 담긴 것은 창틀에 올라선 나였다. 그래도, 손님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야겠지. 고개를 한 번 꾸벅여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안녕히 계세요, 카를.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분명,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카를이었다.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니 이름 정도는 불러줘도 될 것 같았다. 카를이 말릴 틈도 없이, 나는 아래를 향해 몸을 던졌다. 계약의 종말과 자유를 향해서. 산왕의 궁전에서하지만,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은 내가 매듭을 잘라내고 도망치게 놔두지 않았다. 나는 분명 아래를 향해 뛰어내렸으나, 그대로 멈추어버렸다. 계약서가 그랬던 것처럼, 허공에 붙잡혀버린 것이다. 몸을 천천히 움직여보려 했으나, 몸은 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유일하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동자뿐이라, 눈동자만 옆으로 굴렸다. 시야의 끄트머리에 검은 인영이 보였다. 필시 그 재수 없는 마법사일 것이었다."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요!"정정해야겠다. 다행히 입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참으로 자비로운 집주인이 아닐 수 없었다."누가 봐도 무모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정도야 식은 포리지 먹기거든요! 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세요!"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저 재수 없는 작자가 한숨을 쉰 것인가? 여기서 한숨을 쉬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나였다. 어안이 벙벙해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이어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마법사가 있는 쪽과 다른 방향이었다."여기들 계셨군요."잊고 있던 늑대 하인이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켜 준 것이다. 늑대마저 나를 무시했다. 서러워서 더는 여기 있을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몸에 힘주어 구속을 벗어나려 용을 쓰는데,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좋습니다. 소원이시라면.""네?"순순한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잘못 작동하는 법은 없었다. 눈을 다시 굴리려는데, 몸이 아래로 쏠렸다. 어느 순간 나를 붙들고 있던 힘이 사라진 것이다. 몸에서 힘을 풀고 낙하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대로 라면 어딘가 하나는 부러지겠다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그런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올렸다. 다행히 이번에는 고개가 내 의지를 따랐다.창문에 검은 인영 둘이 보였다. 하나는 카를, 다른 하나는 늑대였다. 카를 뒤로 푸른 광휘가 비치는 것으로 보아 마법을 써서 멈춘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발을 땅에 내려놓았다. 푸른 빛무리가 내 움직임을 따라 카를의 손으로 몰려들었다."다치지 않았습니까?""덕분에요!"나를 떨어지게 만든 원흉이 나를 구해줬다.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완벽할 것 같은 인생에 오점 하나 크게 찍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이런저런 생각으로 아픈 머리로 한동안 노려보고 있자니, 창문에서 사라졌다.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대로 순순히 잡힐 수 없었다. 나는 대문을 향해 전력질주 했다. 닫힌 문을 향해 손을 뻗으니, 짜릿한 감각이 몸을 내달렸다.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났다.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뜻인가?아니나 다를까, 몸을 천천히 돌리니, 눈앞에 카를이 서 있었다. 조금은 거칠어진 숨에서 여기까지 뛰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문에 기대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카를은 더 다가오지는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한참 노려보았다.그런데 이상했다. 왜 문에 기대있는데도 아프지 않지? 카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슬쩍 문을 밀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망함에 문에서 손을 떼고 바라보니, 카를이 입을 열었다."이제, 모험은 다 끝났습니까? 다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고...?""대신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누구 대신이요?""저에게 잘못한 사람들 대신이죠. 계약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붙잡아둬서 뭐 할 건데요. 그때 값은 치른 거 아니에요?"카를은 가라앉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집에 굳이 나를 두어야 한다는 이유는 모르겠다. 마법사는 한숨 쉬며 제 머리를 쓸어올렸다."확인할 것도 있습니다.""뭘, 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나도 모르게 허리춤에 찬 칼에 손을 댔다. 카를의 눈썹이 다시 한번 하늘로 치솟았다. 하지만, 제아무리 카를이 마법의 천재라 해도, 마법보다는 검이 더 빨랐다. 눈에 힘을 주고 같이 노려보았다. 원래 싸움은 기선제압이다. 내 기세에 겁을 먹은 것인지, 카일은 순순히 대답했다."당신에게도,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이미 이곳에 붙잡혀온 것부터 나쁜 일인 것 같은데요.""종종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고 보니 몸이 가벼웠다. 생일이 되면, 일주일쯤은 꼭 머리가 아프곤 했다. 지금은 계약서의 일로 잊고 있었는데, 대개 한 번 편두통이 시작되면,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있어야 했다.무엇이 달라졌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행운의 편지가 온 것 외에는 달라진 일이 없었다. 내가 머리가 아파 앓아눕는 것도 알고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했다. 그때 나를 대가로 계약하면서 나에게 마법을 걸어놨을 수도 있고.카를을 제대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딱 벌어진 어깨가 힘을 제법 쓸 것 같기는 했다. 하지만, 제아무리 마법사라고 해도 뒤에도 눈이 달린 것은 아니니, 뒤에서 습격하면 당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당분간은 저자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그런데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에 잘 들지 못해요.""당신이 머물 방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카를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나는 황급히 따라갔다. 저택의 규모를 생각하면, 내가 머무를 방이 우리 집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카를 앞에서는 까다롭게 굴었지만, 나는 길바닥에서도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일하다 고되면 나무 밑에서도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그러니 침대까지 내어준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나가는 길을 까먹지 않기 위해 주위를 열심히 살피며 카를을 따라갔다. 복도에 서 있는 조각상의 자세를 따라해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세를 풀지 않은 채 조심히 고개를 돌려보니, 카를이 한심하게 나를 쳐다보았다."뭐 하는 겁니까?""내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그건 방에 가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거긴 이거 없잖아요."카를은 잠시 말이 없었다.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에 말을 잃은 것인가 싶어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카를이 입을 뗐다. 조각상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만 마지못해 내뱉는다는 말이."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카를의 말에 조각상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았다. 고뇌에 찬 일그러진 얼굴에 잠시 친밀감을 느낀 건 맞았다. 툭 불거진 힘줄. 근육이 솟아오른 팔뚝과 어깨에서 노동의 흔적이 엿보이기도 했다. 친근하기는 했지만, 방 안에 둘 필요는 없어 보였다."제 방에 예술품을 둘 거면, 좀 더 멋진 걸로 놔줬으면 좋겠는데요.""...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카를을 보면서 걸음을 옮기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조심스레 입술을 떼었다."조각상을 방에 오래 두고 볼 거면, 콧날도 베일 듯이 서 있고, 눈동자는 깊고, 몸도 단단해서 볼 맛이 있는 그런 조각상을 가지고 싶어요. 저건 볼 때마다 내 처지 생각나서 별로야."나도 모르게 카를의 생김새를 조금 읊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말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비록, 카를의 생김새를 머리에서부터 찬찬히 훑어보았지만,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생김새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알아차릴 리가 없다. 그런데, 헛기침이 들려왔다."자꾸 그렇게 보시지 마십시오."카를이 제 얼굴을 감추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걸음을 옮겼다. 시선을 제법 끌법한 얼굴인데, 내가 몇 번 쳐다봤다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괜히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싶기도 했고."그야 저와 같은 곳으로 가니 당연히 쳐다보게 되지 않나요?"카를은 그 뒤로 방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었다. 조금 가라앉아 보이는 흑발 미남 구경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카를의 말을 긍정하는 꼴이라 시선을 위로 들 어올렸다. 천장에는 전설 속의 생물을 세밀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빼곡했다. 헤르니아의 건국 신화를 떠올리며 걸음을 옮기는데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여기입니다.""미안해요. 구경 좀 하느라.""이 집이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곳에 머무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카를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눈은 즐거웠으나, 카를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오막살이 내 집이 최고인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카를 너머로 보이는 우리 집 부엌 만한 침대가 우리 집에 있으면 삶이 한결 쾌적해질 것 같기는 했지만."구경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원하신다면, 집을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불필요한 말을 하는 카를을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카를의 미소가 문 너머로 사라지고, 방에 혼자 남았다. 천장에는 전설 속의 여왕 라우데아와 그녀의 조력사 검은 용이 그려져 있었다. 그 전설을 이어받았는지, 방 안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인상 깊었다. 좋은 꿈보다는 악몽에 더 잘 어울리는 방이었다.하지만, 침대에 눕는 순간, 그런 생각은 스르르 사라졌다. 민들레꽃 씨앗을 엮어 만든 것 같은 폭신한 침대였다. 눕자마자 몸이 푹 꺼졌다. 게다가 세 바퀴쯤 굴렀는데도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침대 품에 안겨 잠들면, 붉고 검은 기운이 불러온 악몽은 얼씬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종일 긴장했던 몸이, 침대 속에서 풀어졌다. 잠이 들려는 찰나, 천장에 있는 용과 눈이 마주쳤다.지금 잠시 헤어져 있는 가족이 생각났다. 가족들은 용을 잡으러 갔다고 했다. 지금은 전설 속에만 남아있는 용을.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독 용에 집착했다. 아이들이 공놀이할 때나 부르는 노래가 진실이라고 믿었다.잡아라 잡아라저 용을 잡아라입에는 임금님옷자락 물고서저산을 넘어서도망처 가누나잡아라 잡아라저 용을 잡아라용 잡아 죽이면임금님 살리고용 잡아 오면은세상을 얻는다.아이들이 흥얼거리는 가락을 머릿속으로 읊었더니, 그동안의 피로가 무겁게 다가왔다. 가족에 대한 걱정, 이곳에서의 생활, 카를의 꿍꿍이. 한구석에 제쳐두었던 늑대 하인을 떠올렸을 때, 언뜻, 그 노란 눈동자와 마주친 것도 같았다. 천장에 있던 용의 눈동자가 무슨 색이었지? 다시 들어 올리기에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이곳에서 하루쯤 더 머문다고 내 인생이 더 꼬이지는 않겠지. 이불에 잠시 고민을 묻어두고 잠을 청했다. 눈을 떴을 때는, 맑게 깬 머리로 성을 찬찬히 둘러볼 생각이었다. 산왕의 궁전에서단잠에 빠져든 나를 깨운 것은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었다.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왔다. 그제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온 신경을 집중시키니, 부드럽고, 털이 보송보송한 손이 느껴졌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거대한 짐승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바람에 뺨에 털이 스친 것 같았다. 뺨을 베개에 기댄 채 자고 있었으니 코끝까지 간질여진 것은 당연했다.왜 눈을 떠보니 거대한 짐승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는 눈을 제대로 뜨고 그 짐승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짐승이었다. 어디서 보았지. 멍한 머릿속을 뒤척이다가 어제의 기억에서 멈추어 섰다. 늑대 하인이었다. 아직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카를의 충실한 심복."...당신이...왜 여기에?"카를이 나를 깨우러 올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렇게 편한 잠자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부디 이 푹신한 행복을 늘어지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부풀어오른 희망은 늑대의 한 마디에 푹 꺼져버리고 말았다."일어나실 시간입니다.""제가 해야 할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나의 스승이자 삼촌이 말하기를, 세상에 공짜 밥이란 없다. 카를이 이런 호사스러운 침대에 나를 재운 대가를 받아내려 하는 것은 당연했다. 내가 효용 가치가 있으니 계약씩이나 해서 나를 묶어두는 게 아닌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야 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아니, 그래야만 하니까. 적어도 말도 안 되는 계약에 발목 잡히는 것은 피해야 했다."주인님께서는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그런데 나를 깨웠어요?""늦게까지 주무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얼마만에 가져본 휴식인데,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깨질 줄이야. 내 유일한 자산이 건강인데, 이 늑대 눈에는 보이지 않나보다. 생활 노동으로 다져진 근력과 민첩함으로, 내 두 배쯤 되는 삼촌과도 맞설 수 있는 데 말이다. 할 말을 잃어 잠자코 쳐다보는데, 늑대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을 이었다."그리고, 주인님께서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다.""아까는 해야 할 일이 없다면서요."말하는 동물을 믿는 게 아니었어.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거둔 짐승은 아니지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걸 보니 믿을만한 종자는 아닌 것 같았다. 편안함에 기대어보려던 나에게 시련을 안겨주려고 해서 음해하려는 게 아니다."제게 지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아, 네 무엇을 지시하셨나요."민망함에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늑대의 기색을 살폈다. 어쩌면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일지도 몰랐다. 내 미소를 어떻게 해석한건지, 늑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아, 네. 그랬죠."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꿈결같이 화려한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요란하고, 강렬한 꿈을 선물할 것 같은 방은, 오히려 내게 안식을 주었다. 한결 가뿐한 몸의 상태가, 저택을 둘러볼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고 있었다."하지만, 주인님께서는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도망칠까봐요?""그것도 그렇고...여러모로..."늑대가 내 눈을 피했다. 충실한 하인의 회피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집의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서. 두 번째로는, 내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세 번째로는, 나 때문에 카를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을까봐. 어느 모로 보아도 기분 나쁜 이유 뿐이었다."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택에 해를 끼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도망칠 마음은 버리신 것이 맞습니까?"내 친절한 응대에도 늑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방 밖으로 나섰다. 늑대는 황급히 내 뒤를 쫓았다. 어찌나 나를 바짝 쫓아오는지, 늑대는 내가 급작스레 멈추어서자 내 등에 기세좋게 머리를 박았다."...죄송합니다.""죄송하면 세 걸음 물러나는 게 어때요?"늑대는 그제야 뒤로 얼마간 물러섰다. 나는 길도 모른 채로 유유자적 걸음을 옮겼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복도를 구경하는 것도 눈이 꽤나 즐거운 일이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예술품께서는 제 하인만 남겨두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건 아쉬웠지만.정처없이 걷다보니, 제 주인을 대신해 뒤를 묵묵히 따라오는 늑대에게 호기심이 일었다. 뒤를 돌아보니, 늑대가 답지않게 큰 몸을 움츠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겁을 먹은 것 같은 모양새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더욱 자세를 낮추었다."무슨, 일이십니까.""그러고 보니,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거기, 당신, 하기에는 우리 아마 오래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늑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름이 극비사항이라도 되는 것인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 마지못해 제 이름을 실토했다."...피두스입니다.""그걸 그렇게 뜸들여 말 할 일인가.""혹시나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실까봐.""...아까부터 왜 자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와서 남은 해친 적 없는 것 같거든요.""예, 그건 그렇습니다만.""그리고 이런 거 물어줄 돈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조심할 예정이거든요."평소라면, 붙잡혀 온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복도의 장식품을 나란히 줄세워놓고 과녁으로 써도 모자랐지만, 상대는 카를이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나를 볼모로 붙들고 있는 악명 높은 마법사. 이 이상 사고를 쳤다가 다음에는 담보로 무엇을 요구할지 아득했다. 물론 내가 성질을 못이겨 창문 하나를 깼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정도의 멍청이는 아니었다. 지금은 잠자코 숨죽이며 계약의 허점을 노려야 할 때다. 원래 사냥은, 알맞은 때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믿어보겠습니다.""속고만 살았나, 참내."헛기침을 두어번하고, 언젠가 먼 발치에서 보았던 거만한 귀족처럼 손을 뒤로 모았다. 거들먹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호기심이 한 발씩 늘어났다."여기서 제일 화려하고, 비싼 곳은 어디에요?""...한 군데 있습니다만.""진짜 아무짓도 안할게요. 걱정되면 손잡고 가도 돼요."인심써서 피두스에게 손을 허락했다. 하지만 정작 배은망덕한 늑대는 은혜를 모르고 내 손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괜찮습니다. 손님 대접을 섭섭치 않게 해드리라 했으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늑대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기는 했지만, 나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성은 살아움직이는 듯 했다. 분명 계단을 오른 기억이 없는데도, 창문을 내려다보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각도를 달리했다. 부분적으로 마법을 걸어 실내 장식을 바꾸는 마법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성 전체에 마법을 거는 경우는 듣지 못했다. 실내 장식만 해도 철철이 마법사를 불러 유지 보수를 해야해서 거금이 드는 공사였다.성의 구조에 신경을 유심히 기울인 채 주변을 살피다보니, 어느새 금속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문 앞에 도착했다. 하늘에 사는 동물들과 천체, 그리고 구름이 은빛과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이 아래위로 긴 게 천장이 높은 공간인 것 같았다. 창고 쯤 되는 곳인 것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는 복도에 그만한 미술품을 내어놓았으면, 창고에는 내 상상보다 더 정교하고 화려한 예술품이 있을 것 같았다."여기는 창고인가요?""들어가 보시면 압니다."피두스는 한 걸음 물러나 내 뒤에서 나를 잠자코 지켜보았다. 나는 지체없이 문을 열었다. 선반이 아래위, 양 옆으로 붙어서 벽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 선반을 가득 메운 것은, 책이었다. 내가 살면서 한꺼번에 본 중 가장 많은 책이었다. 심지어, 한 층으로는 모자랐는지 계단도 있었다. 이 저택에서 처음 만난 계단이었다. 1층과 2층 각각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어, 책장의 책을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었다.나는 처음에는 넋을 잃어 말을 하지 못했다. 한 바퀴 빙 둘러 보고나서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눈이 번쩍 뜨였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그제야 저택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문너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던 피두스가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다. 내가 잃어버린 위신이 그제야 생각났다."아, 별 일 아니에요.""간혹 삿된 것들이 숨어들기도 합니다."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쩌라는 건가. 부엌을 뒤져 식칼이라도 더 챙겨왔어야 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딱 하루 했을 뿐인데 그대로 비명횡사하게 생겼다. 다행히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늘 지니고 다니는 칼이 아직 제자리에 있었다. 칼손잡이에 손을 올린채 몸을 낮추니, 피두스가 목을 골랐다."물론, 그런 일은 십 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무엇보다 주인님이 계시니 염려 마십시오.""마법보다 검이 더 빠른 거 몰라요? 검보다는 주먹이 빠르고.""그 검이 저택을 훼손하기 전에, 주인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저택의 귀중품을 담보삼은 셈이니 내 목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저택이 더 중한가, 싶어 서운해지려다가도, 귀하디 귀한 채색본일게 분명한 책이 가득 들어찬 책장을 보니 피두스의 말을 수긍하게 됐다. 저기 꽂힌 책 한 권만 해도 내가 용병 생활을 한 해 꼬박해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을 듯 보였다. 그런 책이 족히 수백권은 있어보이니, 나를 살리는 것보다 서재를 구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이기는 했다.하지만,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진로를 바꿔 훌륭한 작가가 돼서 이 서재만한 가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괜한 오기가 생겼다. 나중에는 이만한 집을 얻어서 카를을 고용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때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흑심을 품은 채 책장의 책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나 싶었다.라케시스의 신화, 헤르니아의 역사, 사교계의 예법과 신비한 생물을 지나쳤다. 걸음을 돌려 신비한 생물 앞에 섰다. 붉은 표지의 책을 빼들어 책장을 넘기는데, 이상스레 용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신비한 생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용이었다. 용이 왕을 물어갔다는 노래가 아이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혹시 몰라 그 주변 책장을 살펴보는데, 허술한 책 한 권을 발견했다.다른 책은 표지에도 작은 보석이나 금속 장식이 달려있는데 반해, 이 책은 별다른 장식 없이 검은 표지였다. 책을 펼쳐보니, 수도사같은 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아로새긴 채색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휘갈겨 쓴 글을 엮어 책으로 만든 것이었다.’...용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한다는 것은 그릇된 통념이다. 오랜 세월을 견뎌야 하는 용은,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을 즐겨했다. 그로 인해 용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이 한데 얽히기도 했다…’용에 관한 이런 자세한 기록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없었다. 누가 지은 책인지, 책을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저자는 흔적을 남겨두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구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는 피두스에게 책을 보여주었다."이런 책도 있군요.""처음 보나요?""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책이 있는지 다 알겠습니까.""카를도 그래요?""주인님은, 주인님은 이 책을 모두 읽어보셨습니다."내가 카를의 이름을 편히 부르자, 피두스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지금 피두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었다. 카를이 이 책의 저자에 관해 무언가 알고 있다면, 혹여나 용에 관해 무언가 알고 있다면, 우리 가족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다."지금, 카를 어디 있어요?"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아무래도, 이 저택에 좀 더 머무르면서 알아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았다.산왕의 궁전에서"주인님은 갑자기 왜 찾으십니까?""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피두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책을 움켜쥔 내 손이 하얀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하지만, 내가 설마 이 책으로 카를의 머리를 내리치기라도 하겠는가. 알아낼 것이 있으니 예의를 차렸으면 차렸지. 물론, 협조를 안 해주면 나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는 하지만, 그건 만의 하나인 경우고."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카를 같은 마법사를 협박하겠어요. 카를의 능력을 피두스가 가장 잘 알잖아요.""그건 그렇습니다만."물론, 마법보다 검이 더 빠르기는 했다. 하지만 내가 치명상을 제대로 입히지 않으면, 역공으로 내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한 일을 할 건 또 뭔가. 나는 최대한 무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옆집 아주머니가 빵을 적선하고 갈 때마다 짓는 표정이었다."...따라오십시오."역시 생활 연기를 당해낼 자는 없었다. 피두스는 금세 풀어진 얼굴로 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오며 천천히 따라오라는 다정한 언사도 잊지 않았다. 카를만 순순히 대답해준다면, 어제의 모험은 하룻밤 악몽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순조로움이었다.하지만, 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간다면, 나는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카를은 순순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확히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쉬이 털어놓지 않으며 나를 감질나게 했다.카를은 피두스의 말에 따르면, 연구실이라는 곳에 있었다. 카를이 마법에 관해 연구하고, 실험해보는 공간이라고 했다. 연구실은 집기가 몇 개 없는데도 서재에 맞먹는 크기를 자랑했다. 새로 알아낸 마법의 위용이 어디까지 미칠지 확신할 수 없어서인 것 같았다. 기왕 무언가를 부셔야 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끼치는 편이 좋지 않은가.카를은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피두스와 함께 들어서자 눈썹을 치켜떴다. 사람에게 인사하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싶었다. 카를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내가 탁자 앞에 이르러서야 몸을 엉거주춤 일으켰다."...지금 당신이 제 발로 저를 찾아온 게 맞습니까?""당신이 환상을 일으키는 마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아마도요?""내가 불러냈으면 적어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 정말 당신이 맞군요."카를과 딱 두 마디 말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인사를 하고 도로 나가고 싶어졌다. 저 얼굴로 사람 정떨어지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카를은 그 어려운 일을 손쉽게 해냈다. 실력이 출중하면서도 이런 숲 한구석에 처박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마법사다웠다."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싶다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내 말이 들렸어요? 사람 마음도 읽고 그래요?"속으로만 꿍얼거렸는데, 그새 그걸 다 읽어냈다니. 여태까지의 과오가 주마등처럼 내 뇌리를 스쳤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암울한 미래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카를이 고개를 저었다."굳이 읽지 않아도, 당신을 보면 피두스조차 알 수 있을 것입니다."어느새 카를과 나 사이에 자리 잡은 피두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피두스도 밤에 조심해야 할 텐데 저렇게 해맑다니. 으슥한 곳에서 저 복슬복슬한 뒤통수를 만나면 딱 한 대만 때려주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빛나는 바람에 어떻게 발을 걸어야 저 얼굴이 상하지 않을지 고민했다. 그로 인한 침묵을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 카를이 조심스레 말했다."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까지 구속할 마음은 없습니다.""이미 여기 붙잡아 놓은 것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여전히 재수 없게 빛나는 얼굴을 가만 바라보았다. 눈싸움에도 재능이 있는지, 눈도 한 번 안 깜빡이는 바람에 내가 눈을 피해야 했다."저를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이유가 있어야 굳이 찾나요, 뭐."대뜸, 네가 용에 대해 아는 것을 다 말해봐라, 하면 털어놓지 않을 것이 뻔하니, 살살 달래야 했다. 용이 왕을 납치해갔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도 용을 사냥하겠다 나선 사람들은 많았다. 물론, 죄다 별 소득 없이 돌아와서,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는 가설에 무게를 더했지만. 하지만, 적어도 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 비밀의 열쇠를 지닌 게 저 인간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다."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당분간 얼굴 보고 살 거면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잘난 문지기께서는, 우리가 사이가 갑작스레 긴밀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듯했다. 눈썹은 한껏 치켜 올라갔고, 팔을 넓게 벌려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움켜쥔, 상당히 위압적인 자세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편안한 잠자리가 증명해주건대, 저 인간은 나를 해할 마음이 없었다. 고로 더 뻔뻔하게 나가도 될 것 같았다."물어볼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빨리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거."내가 검은 표지의 책을 들어 올리자, 카를의 눈이 매서워졌다. 언제라도 튀어 올라 내게서 책을 낚아챌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책이 소중하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리라. 나는 보란 듯이 책을 쫙 펼쳐 보였다. 그 바람에 책의 등 부분이 종이에서 떨어져나왔다. 다행히 날개가 책을 지탱해줘서, 책이 낱낱이 분리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카를의 미간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내 체류 기간이 한 주씩, 아니 한 달씩 늘어가는 게 눈에 보였다."그 책은, 어디서 찾았습니까?"얼마간의 침묵 이후, 가까스로 평정심을 회복한 카를이 내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책을 손에 넣은 것이 아니므로 당당했다. 카를의 눈을 마주하고 획득 경로를 밝힐 수 있을 만큼."책장에 꽂혀 있던데요?"카를이 다시 눈썹을 치켜올렸다. 이제는 눈썹이 제자리에 있을 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인상파 카를도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으니 크게 불만은 없었고. 하지만, 그나마 볼만한 얼굴을 커다란 손 너머로 가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내 눈썹이 하늘로 솟구쳤다."제 불찰입니다. 돌려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미모를 감춘 카를은 대적하기 쉬운 상대였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꼽으며 대꾸했다."둘러본다고 하고, 서재로 이끌었으면, 대여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소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말싸움은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내 고개가 수그러들 줄 모르자, 카를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과의 신뢰는 조금 희생할 수 있었다. 내가 책을 흔들어 보이자, 카를의 눈동자가 따라 흔들렸다."소중한 책 아니에요? 지금은 내 손에 있는데요.""...주십시오."부탁하는 태도가 영 공손하지 못했지만, 처연한 빛을 띤 얼굴이 꽤 절박해 보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눈동자에 결연함이 서려 있는 것이, 이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질문에 대꾸도 안 해줄 것 같았다. 이 보 전진을 위한 한 보 후퇴를 택할 때였다."한 가지만, 이 책, 쓴 사람 아세요?""잘 압니다. 주십시오."카를은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책을 향해 손만 뻗었다. 하지만 책은 내 품 안에 잘 갈무리되어 있었고, 카를은 결국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씩 카를이 나에게 다가왔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잊고 있었는데, 카를은 키가 컸고, 뼈대가 굵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위압감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졌다."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마..."카를이 내 지척으로 다가왔다. 나는 마법사의 어깨에 겨우 닿는지라, 그를 올려다 봐야 했다. 잘 다듬어진 이목구비는 빛을 받아 얼핏 숭고한 인상을 풍겼다. 굳은 표정이 불길함을 암시했기에, 나는 침을 삼켰다."죽었어요?"그가 고개를 절도있게 두어 번 좌우로 흔들었다. 그의 몸짓에 맞추어 희망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가 입술을 열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내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멀쩡히 살아있고, 마법사입니다.""그럼 어디 있어요?"살아온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마법사는, 나를 가만히 내려 보았다. 주름 패지 않은 피부는 젊음을 보여주었으나 그의 눈은 깊은 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다룰 수 있다는 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몸이 맨몸으로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반응했다. 소름이 등 뒤를 타고 내달렸다."당신 눈앞에."마법사의 품에 오래된 책을 안겨주었다. 마법사는 나를 흘끔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책을 내 손에서 거두어 갔다. 굳어버린 고개를 끌어올려 책이 성한지 살피는 그에게 물었다."용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용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피로를 머금은 눈이 눈꺼풀 너머로 사라졌다. 책을 가볍게 쥔 손가락이 책 표지를 두드렸다. 그 박자에 맞추어 침을 삼켰다. 시간은 지겹게 흘러갔고, 카를은 고민이 끝났는지 다시 입을 열었다."짐작할 뿐입니다.""나를 용에게 데려다줄 수 있어요?"정확히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가족이 그토록 바라왔던 영광으로. 그 후에 끝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마법사의 짙은 눈은 감정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반면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간절함이 내 얼굴에 떠올랐을 것이었다."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군요.""그 계약서, 다시 쓸 수 없나요. 어차피 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여전히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담보라기에, 카를은 내 가족의 행방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용의 흔적을 알고 있는 마법사가 관심을 가지기에는, 내 존재가 너무 미미했다."당신은, 여러모로 특이한 인간입니다.""나도 알고 있어요.""아, 물론, 겁도 없이 마법사와 대적한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그보다..."마법사의 무감한 시선이 나를 찬찬히 훑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쾌감이 몸을 타고 흘렀다. 턱을 손에 괴고, 내가 복도에 놓인 예술품을 바라보듯, 나를 관찰하는 시선. 저 시선이 유독 불쾌한 까닭은, 눈길이 향하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면, 언제고 카를은 나를 저런 눈으로 바라볼 터였다."솔직하게 터놓고 내 협조를 구하는 편이 낫지 않아요?""내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때문입니다.""그걸 내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고요? 이 성에 틀어박혀서?""당신 가족의 탓도 있습니다. 애초에, 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을 알아차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부딪쳤다. 딱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도 내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내가 협상 테이블의 낮은 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었다. 휴전을 제안한 것은 뜻밖에 카를이었다."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배를 채우고, 이 저택을 내키는 대로 둘러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카를의 말에 화답하듯, 내 뱃고동 소리가 울렸다.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부끄러움을 뱃속으로 밀어 넣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내가 이 방에 들어선 이후, 카를이 처음으로 웃었다.[작품후기]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걸요. 암요.^^^산왕의 궁전에서민망하긴 했지만, 당장의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카를은 이미 얼굴 전체로 번져버린 웃음을 꽤 오랫동안 갈무리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괜히 웃음만 더 살 것 같아서 한동안 노려보았다. 카를은 삼 일간 보일 웃음을 다 몰아 뱉더니만, 내게 말을 건넸다. 여전히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다."식사를 하시겠습니까?""당연하죠. 안내해주세요."나의 전투적인 기세에 카를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나는 드물게도 얌전히 그 뒤를 따랐고, 피두스가 그 뒤를 따랐다.성의 규모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더 놀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서재에 맞먹는 규모의 식당은, 긴 식탁을 치우면 연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숙녀와 신사가 손을 잡고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활보 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셋이서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광활했다. 한 명, 또는 한 마리는 어디에 앉아야 한다는 말인가. 의자도 두 개뿐인데.나의 시선을 눈치챈 것인지, 늑대 피두스는 몸을 일으켰다. 고개를 약간 아래로 숙이자, 피두스와 눈을 마주할 수 있었다. 피두스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다."저는 따로 챙겨 먹겠습니다."처음으로 피두스의 말에 순순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카를은 피두스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이 집에 내가 알기론 사용인은 저 늑대밖에 없는데, 요리를 설마 할 생각인가. 불안한 눈으로 카를을 돌아보았다. 설마 손님에게 일하라 할 생각은 아니겠지. 아니, 애초에 내가 객은 맞나. 사실 고용인이 부족해서 데려온 걸지도 몰랐다."여기 잠시 앉아 계십시오."카를은 긴 식탁의 한쪽 끝을 가리켰다. 나는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자리에 앉았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얌전히 앉아서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도 불안했다. 그렇다고 나서자니,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괜히 그릇만 깰 것 같았다.얼마간은 앉아서 얌전히 처분을 기다렸으나, 고양이도 아닌데 호기심이 자꾸 샘솟았다. 결국,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둘러보았다. 이 긴 식탁에 의자가 단 두 개뿐인 것이 이상했다. 매끼니를 거나한 만찬으로 먹는 것일까. 사람들을 제 영역으로 발도 못 붙이게 하면서 누군가 올 것처럼 의자 하나를 더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사스러운 의자 너머 식당 한편에 우두커니 선 갑옷은 카를이 입는 것일까. 그 위의 그림은 무슨 의미일까.주인이 답해주는 바가 없으니 물음표만 늘어갔다. 결국 갑옷 가까이 다가가 눈높이를 가늠해보는데, 뒤에서 헛기침이 들렸다. 이어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볼 것도 없이 카를이었다."당신에게는 클 것 같습니다만.""당신 거예요?""사실, 저것은 장식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착용하는 것은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실금 하나 없는 갑옷의 매끈한 광채가 그제야 이해됐다. 요리는 다 끝난 것이냐 물으려 하는데, 시선 끝에 요상스러운 게 잡혔다. 무언가 둥글고 넓적한 것이 날아오고 있었다. 식탁 위로 안착한 비행 물체는, 다름 아닌 접시였다. 그것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수프를 품은 접시."앉으시겠습니까?"어느새 카를이 식탁 앞에 의자를 붙들고 서 있었다. 내가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자, 우아한 몸짓으로 의자를 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도 비행접시는 착실히 음식을 식탁으로 배달해주고 있었다. 밭에서 나는 푸른 채소와 색색깔의 과일을 넣은 모둠 채소, 새큼한 나무 열매와 꿀을 넣은 닭요리, 고기를 넉넉히 넣어 끓인 스튜, 그리고 이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생선 요리가 내가 맡아본 적 없는 향신료 냄새를 풍기며 식탁에 안착했다."배고프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카를이 자기 자리에 앉으며 내게 물었다. 하지만 이렇게 다채로운 음식은 처음이라 무엇부터 먼저 손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지가 배고픔을 막아섰다. 손을 허공에 걸어둔 채로 내 눈동자가 흔들리자, 카를이 내게 손짓했다. 의아해하는 사이, 채소가 가득 담긴 그릇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이것도 마법이에요?""보시다시피."카를은 하늘과 땅이 뒤바뀐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듯한 태연함으로 대꾸했다. 칼이 우아하게 생선토막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방금, 분명 어떠한 마법진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릇이 저절로 움직였다. 카를의 얼굴은 부엌에 들어서기 전과 다름없이 윤이 났다.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카를은 내 생각보다 더 강한 마법사일지도 몰랐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힘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았다. 하긴, 내 추측이 맞는다면, 마탑주에 버금가는 실력일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런 귀퉁이 영지에 틀어박혀 조용하게 살 수 없을 것이고."숨 쉬는 것 같이 마법을 쓰시네요.""...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하긴, 나는 카를을 안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내 탄생 이전에 나를 보았다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정도에 댈 게 못 되었다. 어쩌면 낮에는 기를 쓰고 버티다가 밤에 침대 위에서 끙끙거리고 있었는 지도 몰랐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의외였지만. 내가 어느 틈을 노려서 도망칠 줄 알고. 나는 힘을 비축해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고기를 원수처럼 씹었다."물론, 당신 하나 정도 붙들어놓을 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아까 한 생각은 취소다. 카를은 여전히 재수 없는 계약자였다. 저렇게 뺀질한 얼굴로 해사하게 웃어도 용서가 안 될 만큼 재수 없었다."많이 드세요. 더 있습니다."하지만 때때로 온풍이 부는 듯한 얼굴에 걸맞은 자비도 갖추고 있는 것 같았다. 제 얼굴이 어떤 의미로 훌륭한 무기이자 전술인 것을 잘 아는 사람 같았다. 하기야,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에 거울 하나 없는 것도 이상하기는 했다. 당장, 은으로 만들어진 듯한 이 반질반질한 접시에도 내 얼굴이 비치는걸. 고집이 묻어있는 내 얼굴을 고기로 덮어두고, 나는 음식과의 전투를 재개했다. 이 전투의 승자는 나고, 거덜 난 집안 살림에 눈물 흘릴 패자는 카를이었다.카를은 생각보다 관대했다. 그의 강 같은 은혜가 내 안에 넘쳐흘렀다. 목 끝까지 음식이 차올라서 한 발짝 걸으면 흘러내릴 것 같았다. 아직 식탁에 남은 음식이 많았다. 주린 배 때문에 밤에 허공을 차며 일어나곤 하던 때를 생각하면, 식탁보에 싸서 죄다 가져가고 싶었다."아직 부족하십니까?""아니요. 차고 넘치는데...""그럼 뭐가 문제입니까?""...아깝잖아요."카를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다. 내 시선은 식탁 위에 붙박혀 있었다. 조금씩 뒷걸음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카를은 다시 한번 식탁의 음식을 가리켰다. 체념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손짓이었다."가져 가셔도 됩니다."카를의 진위를 가릴 수 없어 망설이는데, 카를이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다."어차피 이 집에 계속 머무시면 원하실 때마다 이렇게 차려드릴 텐데요.""저는 서재를 다시 한 번 구경할게요."카를이 나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한 폭의 명화 같았지만, 어딘가 배알이 뒤틀리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카를이 유려한 곡선으로 입꼬리를 올렸고, 잊고 있던 피두스가 내 발치로 다가왔다."어디로 가실 겁니까.""언제 왔어요?""식사가 끝나신 것 같아서 왔습니다."분명 털끝도 안 비쳤는데, 어떻게 식사가 끝난 걸 알고 온 것일까. 말하는 늑대는 마법 능력도 갖추고 있나. 유심히 늑대를 아래위로 훑는데, 늑대가 고개를 저었다."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입구에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다행히 늑대는 말을 하고 가끔 이족보행을 할 뿐 마법사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물론 저 위압감은 무해하다고 보기에 어려웠지만, 나를 해할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다. 카를이 붙인 감시역인 것 같기는 해도, 내 행동을 저지하지는 않으니까.그리하여 나는 의뭉스럽게 웃는 카를을 뒤로 한 채 감시역을 달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여전히 수많은 책을 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워낙 책이 책장에 빽빽이 꽂혀있어서, 내가 책을 뺀 책장의 이가 여전히 빠져 있었다.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없나, 그 근처를 더듬어 보는 데 툭 튀어나온 책이 눈에 들어왔다. ‘공간의 실체와 관련된 이론과 실재’라는 책이었다. 책장을 펼쳐 보지 않아도 숙면을 도와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하지만, 책보다 더 눈에 띈 것은 빈 공간이었다. 얼핏 검은 구멍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휘몰아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빛 같기도 했고, 색채 같기도 했다. 소용돌이치는 빛깔이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다. 좁은 틈이라고 보기에는, 무엇이라도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빛무리가 내 눈앞을 빙빙 돌았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은 순간이었다.다시 눈을 떴을 때는 끝없는 공허 속에 있었다. 어떠한 색도 띠지 않는 흰색의 연속이었다. 손을 뻗어보아도 끝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발을 내디딜 수 있으니 바닥이 있기는 한데, 내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데도 무한히 희기만 한 공간이 어떻게 가능하지?정처 없이 걸었다. 내가 방금 지나온 곳을 다시 지나왔는지도 몰랐고, 새로운 곳을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손을 뻗어 휘저으니, 손끝에 단단한 벽이 만져졌다. 분명 제한이 있는 공간이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천장으로 올라가야 할까. 흰빛을 무한히 보고 있으니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대로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보는데, 잔상이 느껴졌다.눈이 피로해져서 일어난 착각일까. 일어나 걸어갈 기력이 없어서 손을 뻗었다. 잔상이 사라졌다. 손을 다시 거두어들이자 다시 또 빛무리가 나타났다. 단지 내 눈의 착각이었다면, 손바닥 위로도 나타났을 게 분명했다. 아래쪽 아주 작은 귀퉁이. 아니, 어느 정도 규모의 공간인지 알 수 없으니 귀퉁이라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균열이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내어 틈을 향해 발을 내질렀다. 그 순간, 공간의 긴장이 깨졌다.흰색이 부서져 저마다 다른 빛깔로 흩어졌다. 눈앞으로 강렬한 빛이 내리쬐었다가, 무지개를 그려냈다가, 스러졌다. 공간의 파편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꽤 익숙한.카를이 서 있었다. 서재와 이 공간의 경계 사이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빛나는 얼굴이 몹시 반가워 보였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뛰어갔다. 한 번 탄력을 받은 몸은 멈출 줄 몰랐고, 자연스레 카를에게 넘어진 꼴이 되었다. 저도 모르게 내 완충제 역할을 한 카를은, 아래에 깔려서도 별로 기분 나쁜 기색이 아니었다."내가 본 게 맞았습니다."카를의 눈동자에 내가 비쳤다. 눈과 입을 동그랗게 벌린 멍청한 모습이었다. 반면 카를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카를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내가 눈썹을 들어 올리며 잡은 손을 흔들자 황급히 놓았지만."내가 옳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을.""미안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온 거거든요.""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당신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모르겠죠."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카를은 환한 얼굴로 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얼마나 열렬하게 바라보는지, 피두스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카를을 깔고 앉아 있던 걸 잊을 지경이었다.산왕의 궁전에서그의 열렬한 눈빛을 더 이상 마주하기 부담스러웠던 차에 피두스가 나타났다.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피두스를 향해 열성적으로 손짓했다."거기 서 있지만 말고 이리 와요.""...그러는 비아테님이야 말로..."피두스의 말에 그제야 내가 카를을 깔고 앉아 있었다는 게 기억났다. 퍼득 몸을 일으키니, 여전히 웃음을 흘리고 있는 카를이 보였다. 그에게서 묘한 광기가 느껴져 서둘러 물러났다. 하지만 카를의 시선은 내게 달라붙었다. 나는 그를 외면하며 피두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당신은 마법에 재능이 있습니다."하지만 카를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눈동자를 돌려도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시선이었다. 열기를 품은 눈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뱉어놓았다. 저 얼굴 외에는 아직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자연히 신경이 곤두섰다."...그래서요?"이어질 말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다. 첫 번째, 카를의 지난 발언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유력한, 그러니 계약에 따라 제 실험대상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 제 조수가 되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세 번째, 당신의 능력은 아직 세상에 내놓기 위험하니 여기 아주 오래 있어주셔야겠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모두 꺼림칙했다. 나도 모르게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다."제가 마법을 가르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입을 뗄 때마다 뜻밖의 말만 뱉어놓는다. 하지만 지금 한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한 발짝 다가간 발언이었다. 하지만 만약, 카를의 말이 말 그대로 네 번째, 당신을 내 제자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내게 재능이 있고, 그래서 그게 계약서의 시작이 된 거라면."물론 제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마법사의 재능을 타고나서 여기 묶어둔 건 아니시겠죠?"마법을 배운다면, 분명 다른 길이 열릴 것이었다.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와 명예도 따를 것이었다. 그 수가 한 마을을 채 이룰 수 없다는 마법사 중에서도, 여성 마법사의 숫자는 손에 꼽았기에, 드문 기회였다. 하지만, 마탑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의뢰를 받으며 활동하는 마법사가 아닌 이상, 제자를 키워내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구석진 곳에 틀어박혀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당신이 마법을 배우다보면 알게 될 일입니다."얼굴은 흑조면서, 하는 짓은 능구렁이 같으니. 우아한 손가락이 검은 머리칼을 흩어내는 몸짓이 날개짓과 같았다. 하지만 저기 넘어가서는 안됐다. 젊은 날 청년의 얼굴에서 자아내는 신뢰의 기운을 믿었다가, 그나마 모아온 재산을 잃고 눌러앉았다는 코넬리아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러자 한층 맑은 정신으로 카를을 바라볼 수 있었다."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어둠의 흑마술사라든가, 그런 걸지도 모르잖아요."구석에 숨어 살며 사람들을 놀래키고, 다른 마법사들을 멀리한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부당하게 사람을 얽어놓는다. 이 모든 조건을 한 데 합친다면, 더할나위 없는 멋진 악당이 탄생했다. 흑마술로 사람을 저주하는 어둠의 마법사, 카를. 빛이 아닌 어둠과도 썩 잘 어울리는 얼굴이었다. 허나 멋드러진 칭호를 선물받은 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그랬다면, 다른 이를 이렇게 어설픈 방법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알고 계시니 참 다행이네요."하지만, 여기서 포기했다면 나를 이곳까지 끌어들인 카를이 아니었다. 카를은 내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사뭇 진지한 눈빛은 나를 멈춰 세우기 충분했다. 카를은 한동안 말이 없었기에, 나는 침만 꼴깍 삼켰다. 피두스조차도 말이 없었다."그럼, 제가 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침묵을 깬 것은 카를의 한마디 였다. 내가 혹할 수 밖에 없는 미끼였다. 딱 알맞은 때에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나서니, 순순히 동의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미끼에 끌려간다고 해서 의심마저 버려야 할 이유는 없었다."이렇게 순순히?""어머니와 아버지 찾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신 밖에 할 수 없는 일일겁니다."미끼를 걸고, 단단히 얽어맨다. 그리고 힘차게 잡아당긴다.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하지만, 잡힌 물고기 신세라도 꼬리짓 한 번 정도는 해야하는 것이 옳았다. 삼촌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다."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저 밖에 할 수 없겠죠.""아니 그보다...당신은, 용을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말만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지겨웠다. 내가 용을 만날 운명이라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네 마네 해야할 이유도 없었다. 내가 설마 용을 잡는데 필요한 미끼가 되는 걸까. 그렇기에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는 걸까. 명예가 탐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치 않는 죽음의 위협까지 떠안고 싶지는 않았다."대체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는 지 전혀 알 수 가 없었어요."카를은 그림같이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뻔뻔한 낯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눈이 마주하자, 카를은 여상히 웃으며 손을 거두어들였다."아직 설명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그만큼의 인내심이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사람을 구금해놓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이미 집주인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 훌륭한 인성을 입증했다. 이 이상으로 뛰어난 인격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과정이 의심스러운 건 논외로 치면, 마법을 한 두 가지라도 배우는 건 큰 이득이었다. 적어도 급작스러운 부의 축척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낮은 직급의 귀족에게 빌어먹을 좋은 기회였다. 그런 치들은 잘만 부추겨주면 후하게 보답하기 마련이었다."...마법에 대해 가르쳐준다는 건, 분명 나에게 손해는 아닐 거예요."처음부터 동등한 입장이 아니었다. 나는 상대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니 뜸을 들이면서 상대의 헛점을 노릴 필요가 있었다. 카를의 결점 없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부러 환히 웃었다. 카를의 미소가 그제야 멎은 것은 매우 유감이었다."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당신은 나를 마법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지막지하게 부려먹다가, 용에 관해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피두스가 어느새 카를의 발치에 다가와 앉았다. 카를은 저도 모르게 피두스의 귀 사이를 간질이며 내 눈치를 살폈다. 피두스의 얼굴이 점차 나른하게 풀어지는 것과 달리, 카를의 얼굴은 굳어져만 갔다. 카를은 턱을 메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 입을 열어 말하기를."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자신은 계약서로 사람을 묶어놓고 지금 나는 안된다는 건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처사에 시선이 곱게 안 갔다. 하지만 내 눈빛에 겁을 먹은 것은 도리어 피두스였다. 슬금슬금 내게서 멀어지는 게, 저게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가만 보면 자기 몸만 엄청 사리는게 참 얄미웠다. 그래서 피두스를 노려보며 말했다."...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편이 더 깔끔할 수도 있고."무덤덤하게 요구를 받아들이는 카를에 괜히 내가 무안해져서 턱을 치켜들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다. 협상의 조건은 최대한 유리하게, 그래야 도시에서도 코 베이지 않는 법이라고 삼촌이 말하기도 했고."아직 서명 안 했고, 분명히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카를은 카를 대신 눈치를 보는 피두스의 머리를 한 번 더 쓸어주었다. 이어 나를 보며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생각, 하십시오. 실컷. 어차피 이곳에 머무르면 남는 것은 시간 뿐일 거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더 얻어갈 게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괴롭게 하던 문제로부터 해방입니다.""딱 한 가지 더 있죠."내가 아직 카를을 믿지 못한다는 거. 자신이 돈을 빌려줄 때와, 돈을 빌릴 때의 인격은 다른 법이었다. 내가 내 지푸라기 침대를 잊고, 이 집의 푹신한 침대에 푹 빠져버리고 난 뒤에, 카를이 나를 밖으로 내쫓는다면. 이미 넉넉히 차려진 식탁에 익숙해졌다가 다시 빵 한 조각 얻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나는 내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지금의 안락한 생활에. 다른 사람이 내 길을 일러주는 상황에. 굶주림과 불안은 이미 내 오랜 친구였다. 대신 그들에게는 자유가 따라왔다. 나는 언제든 그 집을 나갈 수 있었다. 나를 가족이 매어두고 있었기에 자유는 내게 낯을 가렸다.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얻은 능력과 지식으로 가족을 찾아나설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굴레를 벗어던진다면, 나는 굶주림과 불안을 떨쳐내고도 자유를 더 알아갈 수도 있었다. 만약과 혹시가 내 발을 이곳에 붙들어 놓았다. 하긴, 어쩌면 내가 그 집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도 가족이 아니라 희미한 가능성일지도 몰랐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나를 알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도."카를은 생각에 잠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서 숲을 닮은 냄새가 났다. 그 향기가 옅어지기 전에,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이제 당신과 나에게 충분한 건 시간 뿐입니다. 넉넉하게 쓰십시오."그의 말은 침대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가 남긴 향기보다 더 진득하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머릿속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잠을 청하려다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다. 이 집의 구조가 눈에 익을 때까지 무작정 걸어볼 요량이었다.얼마나 걸었을까, 본 적 없던 곳에 다다랐다. 여기서 내방까지는 어떻게 가야할지, 걱정거리만 늘어버렸다. 이미 밤은 짙어 달빛만 어슴프레 복도를 비추는데, 가야할 길을 모르니 난관이었다. 거대한 문에 괜히 화풀이를 하려던 차였다."....이런 식!...곤란합니다!"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 우리 지역의 사제님은 남을 의심하거나 엿듣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이미 나는 카를을 의심해버렸다. 그러니 엿듣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자연히 없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귀를 문 가까이 대었다. 덕분에 문에 난 균열을 찾을 수 있었다. 문 너머에는 흐릿한 두 사람의 인영이 보였다."... 무례하신 것 아닙니까."저 목소리는 역시나 카를이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도 나처럼 이곳의 손님인 것 같았다. 밤을 타고 몰래 와야한다는 점에서, 카를의 말에서 그가 불청객임을 알 수 있었다."그 힘이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않는 것은 여왕 폐하의 은덕 덕분입니다.""청한 적, 없습니다."카를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떨어졌다. 내게 했던 말은 봄바람 같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두 사람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고, 위기라 느껴질 정도였다."이만 나가주시겠습니까."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전개에 몸을 틈 가까이에 대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분노에 찬 발걸음 소리는 커져만 갔다. 나는 어떻게든 붙들어놓으려는 카를이 축객령을 내리다니 이보다 더한 모순은 없었다. 작게 웃음을 뱉다가 든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 아닌가. 나는 재빨리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여러모로 곤란해지는 것은 사양이었다. 산왕의 궁전에서우왕좌왕하는 사이, 문이 열리고 안에 있던 이가 걸어 나왔다. 나는 문고리를 쥐고 있다가, 그대로 몸을 웅크려 문에 달라붙었다. 문 열리는 게 아까보다 더 버겁다는 것을 눈치챘을까,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인 듯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에 몰래 한숨을 쉬는데, 그가 멈추어 섰다. 내 침 삼키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것 같았다."...뭐든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문 너머를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 저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 혹시, 나를 위한 말일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다른 의미로 미칠 것 같았다. 이 저택에 들어설 때보다 더 거세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내 심장 고동 소리 때문에 내 존재를 들킬 것 같을 정도로.하지만, 모든 것은 내 괜한 걱정인듯 그는 천천히 걸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검은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바닥을 울리는 목소리를 뱉던 사내는 그렇게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꽤 오래 내 속을 멤돌았다.그가 했던 말로 미루어보건데, 그는 카를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 했다가 거절당했다. '여왕 폐하'라는 말이 나온 것을 미루어볼 때, 여왕이 보낸 사자같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고위 귀족일텐데 이곳에 홀로 온 것이 이상했다. 카를은 지나치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마법사고, 안하무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 하나를 조용히 보낼 수 있어 보였다. 물론, 여왕과 연이 닿은 고위 귀족이면 아주 보낼 수는 없어도 적어도 곱게 보내지 않을 수는 있었다. 자연스레 어둠의 불청객도 뛰어난 능력자라는 결론이 나왔다.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목줄을 틀어쥔 계약자와 어둠 속 실력자의 대화를 감히 몰래 엿들은 것인가. 무엇보다, 그래놓고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인가. 생명 보존을 위한 나의 본능이 어서 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슬그머니 손잡이를 놓고 조용히 오리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하지만 의도와 행동은 다른 문제였다. 문이 갑자기 앞으로 밀렸고, 나는 멋지게 복도를 엉덩이로 활강했다. 의도치 않게 회전하는 몸이 원흉을 알려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의 주인인 카를이었다. 들켜서 좋은 일은 없었으나, 들킨 이상 뻔뻔하기라도 해야 했다."손, 손님이 있는데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나중에 다시 오는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엿들었지 않습니까.""그, 그건 맞지만, 이미 봐 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고개를 돌려요. 무엇보다 혹시나 위험천만한 상황이면 어떡해요."카를은 상대가 당당하게 나오는 것에 약한 것 같았다. 내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조곤조곤 말을 뱉자 당황한 것이 눈에 보였다."...정말로 내가 위험할 거라 생각한 겁니까?"앞머리를 쓸어올리며 나직하게 한숨을 쉬는 모습이 한 폭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저기 홀려 본질을 흐리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가 막힌다는 듯이 보고 있는 것이 맞나. 얼굴에 가려진 진실이 보이자 내 심기가 자연스레 불편해졌다."내가 당신을 걱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오늘 낮에만 해도 그렇게 경계하던 사람이...?"카를이 깊고 푸른 눈으로 나를 뚫어지라 보았다. 나는 자연히 그 시선을 외면했다. 하지만, 분명 아까 귀를 대고 있던 나의 행동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기도 했다. 물론 그 걱정이라는 게 불투명한 내 미래 때문이기는 했지만."걱정했어요! 정말로!"괜히 오기가 샘솟았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질러놓고 눈치를 슬쩍 보는데, 뜻밖에도 카를의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활짝 피어났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삽시간에 찾아온 이른 봄에 얼떨떨한 기분으로 한 걸음 카를에게서 물러났다. 아직 빛을 받아들이기에는 추운 밤이었다.내가 카를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확실했다. 기쁨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감정이 얼굴에 쓰여 있었으니까. 수상한 사람보다는 카를을 좀 더 믿을 수 있다뿐이지, 완전히 기댈 필요는 없었다. 대신 수상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주리라 신뢰할 수는 있었다."그런데, 누구였어요.""글쎄요, 굳이 엮여서 좋을 사람은 아닙니다.""...그럼 지금 나한테 그런 수상한 사람이 와서 엮이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내 얼굴이 구겨진 건 불가항력이었다. 카를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이 시든 것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서를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손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카를이 한숨을 쉬었다. 앞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무언가 털어놓겠다는 의미였다. 고로 나도 침묵을 택했다."마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마탑 소속 마법사였어요?"어쩐지 이 정도의 실력자가 여기 틀어박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속이 마탑이라면, 여왕의 부름을 받지 않을 리가 없었다. 마탑은 귀족들의 의뢰로 배를 불리지만, 기본적으로 여왕의 신하들이었다. 국가에 매인 몸이라는 말이었다."엄밀히 말한다면, 아니죠."마탑은 끈질긴 족속들이었다. 마법에 재능을 보이는 것 같은 아이를 발견하면, 어김없이 마탑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대부분은 마법사를 먼발치서라도 볼 일이 없으니, 대개 수도나 큰 영지에 속한 영지민이나 하급 귀족의 자식이 마탑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해서, 전설이나 옛이야기처럼 다른 영지까지 소문이 퍼지기에 십상이었다. 고위 귀족의 자식 중 마법이 발현되는 경우라면, 자연스레 왕에게 봉사할 의무가 생겨나니 굳이 마탑에 들일 일이 없었다."카를, 당신 귀족인가요?""그러면 당신이 여기 머무를 이유가 생깁니까?""그렇긴 하겠죠."영지에 속한 이상, 귀족의 말에 따르는 것은 의무였다. 물론, 카를은 이 영지를 소유한 자가 아니지만, 우리 영주보다 카를이 더 높은 사람일 것 같았다.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훤히 그려졌다. 하지만, 의무가 따른다고 해서 마음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을 굳혔는지, 카를이 고개를 저었다."됐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런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엄청난 고위 귀족이에요?""그보다, 엄청나게 강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맞겠습니다."카를이 내 말을 흉내 내며 웃었다. 그러면서 이 인간미라고 없이 조형된 삭막한 복도에 자꾸 봄바람을 물어냈다. 저 얼굴에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 다시금 되새기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나도, 당신만큼 강해질 수 있나요?"카를의 말에 따르면, 나에게 마법의 재능이 있다는 것인데, 왜 마탑은 알지 못했을까. 아무리 구석진 영지여도, 마법사를 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화에 귀족 의뢰를 받아온 마법사 주위를 얼쩡거리기도 했다. 마법사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재능이 늦게 발현된 것일까. 분명, 방금 사라진 마탑의 마법사는 내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는데, 혹시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물론입니다. 다만, 당신의 재능은 마탑의 머저리들이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깊숙히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당신은, 누구보다 강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나이에 글 쓰고 읽으면서 검까지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당신의 지식과 운동 신경에는 감탄을 표하는 바입니다만,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걸린 문제라서요."존재가 걸린 문제라는 말은, 자연스레 살고 죽는 이야기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카를 말을 얌전히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인가. 생일 전후로 두통을 앓는 것 빼고는 신체 튼튼한 젊은이인데, 믿을 수 없었다."...내가 죽기라도 한다는 거예요?""굉장히 많은 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네."카를의 산뜻한 대답을 듣자 눈 앞이 캄캄한 게 내 미래 같았다. 하지만, 카를은 내 운명의 끝을 말하고도 묘하게 후련한 얼굴이었다. 내 눈썹이 치켜올라간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지금 나 협박하는 거죠.""협박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카를은 낮은 목소리로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하긴, 나를 협박하고 싶었으면,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일장연설을 뱉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팔짱을 낀 채로 카를의 우수 어린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를은 곧이어 말을 이었다."다만, 당신을 이곳에 붙들어 놓기 위해 내가 가진 수단은 다 사용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도 알게 될 이야기였습니다.""진실이 맞긴 하고요?""당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찾으러 가야 하잖아요.""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진심입니다."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았다. 이곳에 들어올 때, 분명 돌이킬 수 없었다. 내가 이미 깊숙이 들어온 이후 알게 된 게 문제였지만.더 나는 작은 오두막에서 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내가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설 때였다. 그러니 더 마지막 미련을 남겨둔 채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었다."마법도 배워보고 싶고, 가족도 찾아 나서고 싶어요. "카를의 얼굴에서 근심이 걷혔다. 다만, 아직도 그의 얼굴에 불안이 서려 있었다. 카를의 의심을 굳이 걷어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할 때였다."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씀입니까?"의외로 카를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고집스러운 미간 주름이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리를 마치고 난 후에는 관계 정립이 필요할 성싶으니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었다."그것도 맞지만, 그 전에 집에 한 번 들리게 하고 싶어요.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카를은 내가 이 집을 나서는 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이목구비를 따라 패인 선이 점차 짙어져 가는 게 가관이었다. 자기 얼굴 덕에 내가 유한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얼굴 통제가 안 될 만큼 불만인 걸까."제가 피두스를 보내겠습니다.""저기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잘 알고요. 그리고, 뭘 남겨놔야 하는지도."여전히 하늘로 치솟은 눈썹이 불만을 말하고 있었다. 내가 혹여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한 듯이. 도망치려 했으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카를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불안하면, 따라와요."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는 데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이는 게 의아했다. 아니면, 마을로 들어서는 게 그만큼 싫은 것 같았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집어 들 수 없는 법이다. 카를은 한 손에 두 마리 토끼를 꾸역꾸역 집어 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결국 그는 팔짱을 낀 채, 경직된 얼굴로 이런 말을 뱉었다."이곳을 비워두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그때 구원자처럼 피두스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맹수의 눈이 등불처럼 빛났다. 우리는 말씨름을 멈추고 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창가로 스며든 달빛 아래 서서 우리에게 말했다."제가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하지만, 저 거대한 몸집은 마을 사람들을 겁주기에 알맞았다.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 아니 동물에게 심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의 생명이 기분보다 소중했다. 나는 결국 조심스레 내 걱정을 털어놓았다."사냥당하기 딱 좋겠어요."피두스는 긴 한숨을 쉬고 고민하더니, 등을 돌렸다. 아무래도 카를과 어떻게든 타협봐야지 생각하는데, 그의 털끝이 달빛 아래 별빛처럼 빛났다.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빛에 고개를 돌렸다. 다시 그를 바라보았을 때는, 사랑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보송보송한 털과 동그란 눈이 안아주고 싶은 분위기를 뿜어냈다."이러면 어떻겠습니까."목소리마저 청아한 게 합격점이었다. 물론, 인간의 말은 자제해야겠지만. 카를과 나는 서로를 동시에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잘 어울려요.""잘 어울립니다."이곳에 온 이후 처음,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산왕의 궁전에서 피두스는 제 보폭이 줄어든 것이 어색한 듯 보였다. 열심히 네 다리를 휘저어도, 내가 더 앞서 있는 현실을 믿기 힘든 듯, 종종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 보았다. 카를은 물가에 애를 내놓은 것처럼 정문에 기대어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를의 시선이 어쩐지 피두스가 아니라 나를 향한 것 같았지만. 기분 탓일 것이었다.피두스가 열심히 네 다리를 한 번 뚫어놓은 길을 지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다고 마냥 쉬워진 건 아니었다. 새로 돋아난 잔가지에 눈을 다칠 뻔한 위기를 세 번쯤 맞이하자 우리 집이 보였다. 내가 피두스를 제법 겁준 모양인지, 그때까지 피두스는 말이 없었다."카를 한 마디에 여기까지 오는 거, 싫지 않아요?""저는 명에 따를 뿐입니다."사람 말을 하는 강아지라고 해서 말이 통하는 건 아닌 듯했다. 덕분에 말없이 걸었다. 집 안에 들어설 때까지 침묵을 유지할 생각이었는데, 불청객이 한 사람있었다. 한스라고,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내 또래 남자애였다. 그 집 아주머니, 도로시아가 내 인생을 구제해주기는 했다. 저 애는 구원의 배달부쯤 되는 인물이었다."안녕."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일 보던 사이였는데, 삽시간에 공기마저 어색해졌다. 대답 대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가, 그 아래 작은 강아지를 향했다. 나도 모르게 피두스를 안아 들었다. 피두스는 순식간에 높아진 시야에 당황한 듯 버둥거렸다."못 보던 강아지네?""길을 잃은 것 같아."한참 버둥거리던 피두스를 받쳐 들자, 그는 얌전히 내 팔에 늘어졌다. 강아지 노릇이 예상보다 적성에 맞는 모양이었다. 물론 귀 사이를 쓰다듬어 주니 얼어붙는 걸 보면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은 모양이었지만."혹시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아무래도, 내 친구 강아지인 것 같아서 데려다주려고.""...친구?"한스의 말꼬리가 한없이 늘어졌다. 그의 눈에 가득 들어찬 의심이 보였다. 내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볼 정도로 사교성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나를 불우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쿡 박혔다.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 알았다."피두스를 안아 들고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한스가 길목을 막았다. 그를 본 피두스가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작은 강아지일 뿐이었다. 기특한 피두스의 머리를 조심히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한스가 불쑥 말을 꺼냈다."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네가 경계가 확실한 사람이라는..."오늘 그 경계를 한스에게도 확실히 세워 볼 요량이었다. 내가 한스에게 얼마나 봄볕 같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참에 인간관계에 관해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도리였다. 내가 말없이 웃으며 한스를 돌아가려 하자, 한스가 다급히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참으로, 안쓰러운 꼴이었지만, 오래 보고 싶지 않은 꼴이기도 했다."아니, 우리 친구 중에는 저런 강아지 키우는 사람 없잖아.""..네가 어떻게 내 인간관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냐?"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지닌 한스는 내가 집 문을 열 때까지 내 옆에서 종알거렸다. 심지어 며칠간 끝내주게 방치해서 먼지를 풀풀 날리는 문 앞에 동요하지 않고 서 있었다. 정작 집주인인 나는 이 집에 남겨진 물건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고민을 했는데 말이다. 몇 번의 손사래와 얼마간의 인내심 끝에 먼지가 겨우 가라앉았고, 한스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우리가 안 세월이 몇인데, 내가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저 말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고 자랄 때부터 이웃이었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한스집에 양자로 든 마냥 붙어 지냈다. 한스가 나를 카를 보다는 몇 개월 늦게 알았지만, 더 오래 알아 왔다. 한스가 마법 능력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건 애석하긴 했다. 진작 알았으면 내 팔자도 피고 쟤 팔자도 폈을 텐데."너 이제 보니 참 재수 없구나.""네가 얻어먹은 빵을 생각하면 그 정도 생색은 내도 돼.""그건 부정하지 않으마."옷장에서 그나마 상태 멀쩡한 옷을 쓸어 담는데, 집까지 들어온 한스놈의 반응이 요상했다. 얌전히 내 품에서 한스를 경계하고 있는 피두스를 의식하는 듯했다. 오늘의 피두스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귀여웠다. 왜 저렇게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설마 안아보고 싶은 건가 싶어서 슬쩍 내밀어보는데, 피두스가 격렬한 몸짓으로 거부했다."그만 탐내. 얘는 네가 별로래.""어, 그래 참 고맙다. 그런 것보다는, 네 친구 말이야.""무슨 친구.""쟤 주인이라는, 새로 사귀었다는 친구."옷장에 옷이래 봐야 몇 벌 되지도 않아서, 짐 꾸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가보라고 해봤자, 검정도인데, 그건 내가 늘 차고 다녔다. 집에 혹여나 값나가서 두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샅샅이 훑어보는데 한스 놈이 자꾸 방해됐다. 결국 먼지와 지푸라기가 풀풀 날리는 침대에 걸터앉아 한스 자식을 뚫어지라 보았다."대체 뭐가 궁금하길래 그렇게 화장실 마려운 사람처럼 전전긍긍이냐.""너는, 말 참 곱게 한다.""내 어휘가 고급스러운 건 아니까, 빨리 말해봐. 정신 사납다.""설마 그 친구, 저 숲 너머에 사는 친구야?""응, 그런데."나는 동요의 기색을 숨기려 재빨리 답했다. 하지만 성급함이 나를 방해했다. 피두스는 그 틈에 내 품을 빠져나와 침대 위로 뛰어들었다. 덕분에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피두스는 침대 위를 굴러다녔고, 나는 기침을 했다. 한스는 코를 부여잡고 말을 이었다. 웃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울고 싶은 풍경이었다."거기 소문이 안 좋던데.""보기보다 나쁜 사람 아니야.""어쩌다 알게 된 건데.""우리 가족이랑 나 태어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대."말을 하는 와중에도 짐은 한가득 쌓여가고, 마침내, 부엌에 걸어놓은 솥단지 안에서 금화 하나도 찾았다. 이제 더는 값나가는 물건도 없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피두스가 발치에서 끼잉거리고 있었다. 다급한 몸짓으로 보아 돌아가자는 것 같았다."그걸 믿어?""증거도 있고.""증거?"피두스를 들어 올리자, 피두스는 한스를 똑바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작은 몸에서 나오기에는 꽤나 큰 소리였다. 왜인지 몰라도, 피두스가 한스를 싫어하는 건 분명했다."응, 뭐 징표같은 거.""이상하네. 너희 부모님이 숲에 가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한스는 전혀 믿는 기색이 아니었다. 먼지가 주인을 대체한, 낡은 우리 집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될 거였다. 아마도, 꽤나 오랫동안. 그저 영원이지 않기만을 바랐다."그리고, 나도 가족이랑 몇 년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한스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추어 서 있었다."안 나올 거야?""안 돌아올 거지."한스가 툭 말을 뱉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돌아올 거야, 언젠가."내가 문을 반쯤 닫자, 한스는 두 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두스가 끝없이 날을 세우고, 나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걷는데 자꾸만 한스는 뒤를 따라왔다."'언젠가'라고 하면 안 돌아올 것 같잖아.""무슨 상관이야.""상관있지. 이제 이 마을에 남은 친구는 너 하난데."한스의 말대로, 우리 또래는 죄다 영주님의 허락을 얻어 큰 영지로 넘어갔다. 이사 허락을 받는 데 드는 돈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빚을 지고 시작한 타지 생활이 그렇게 잘 풀리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건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성공한 한 두 사람 정도는 가족에게 돈을 약간 보내오기도 했다.어머니와 아버지는 매번 소득 없이 돌아오고는 했다. 이번에는 낸 것 이상의 값을 치르고 오는 모양이겠거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영주님이 편지까지 간섭하시지는 않는 데다 글도 읽고 쓸 줄 아는 이들이 감감무소식인 건 여전히 설명이 안 됐다. 내가 착잡한 눈으로 한스를 바라보자, 한스는 내게 말했다."너도 있잖아.""나 혼자 남으면 무슨 의미야."나는 한스를 돌아보았다. 허공에 멈춘 손이, 나를 붙들려다 만 것 같은 모양새였다. 한스는 오랫동안 내 좋은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앞길을 막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았다. 한스의 말대로 나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떠돌이가 되었으니까."너도, 떠날 때가 된 걸지도 몰라.""돌아온다며.""글쎄, 네가 날 반겨줄 기력도 없을 때 돌아올지도 모르지.""그럼 거짓말했던 거네."한스의 말은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었다. 떠나겠다고 했을 때,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게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가족을 찾는다면, 이곳에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그래도 돌아오고 싶을 거야."대답이 충분하지 않았던 듯, 한스는 내 뒤를 계속 쫓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으나,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걸음에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피두스는 이제 내 품을 탈출하여 제 발로 걷기 시작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너른 들판을 지나면 검은 성이 나왔다.나와 피두스가 성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그때까지 느적느적 걷고 있던 한스가 다급해졌다. 그는 뛰어들듯 성큼 거리를 좁혀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성문 가까이도 오지 못했다."쟤, 왜 저래...?"내 혼잣말을 질문으로 생각한 피두스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잠시 한스를 잊을 법한 귀여움이었지만 정신을 잘 붙잡아야 했다. 한스가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꿈에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벽 둘레에 파놓은 도랑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건너올 다리가 없더라도 물은 모두 말라 있었고, 도랑은 깊지 않았다. 한스의 걸음으로 세 걸음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한스는 유리 벽에 가로막힌 듯 그 짧은 거리를 건너 오지 못했다. 더 흥미로운 건 그의 말소리조차 가로막혀 버렸다는 것이다.흘끔흘끔 돌아보던 나를 피두스가 치맛자락을 물어 끌어당겼다. 성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카를이 보였다. 궁금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카를은 그보다 반가움이 우선이었던 것 같았다. 아니, 부드럽게 풀어지는 얼굴이 안도감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왔습니까."이상한 기분이었다. 분명 나는 집을 두고 이곳까지 왔는데, 마치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를 이토록 반겨주는 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니까."왔어요. 돌아왔어요."카를이 성큼 다가왔다. 섬세한 얼굴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온 세월보다, 몰랐던 순간이 더 많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한 일인가요.""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내 친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원하지 않는 손님이긴 합니다만... 정말 내 의지는 아닙니다."턱을 쓸어내리던 카를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직하게 설명을 덧붙였다."이곳이 그를 거부한 겁니다. 여태 내가 내 힘으로만 사람들을 쫓았다고 생각했습니까."그의 말을 천천히 삼키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것일까. 한스와 우리 가족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의문을 품은 채 다시 카를을 바라보았다. 카를은 내 의아함을 알아챈 것인지 부드러이 웃어보일 뿐이었다."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당신은 여러모로 내게 필요한 존재입니다."카를이 근사하게 미소지었다. 분명 이번에는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인데, 잘못 붙들린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뒤따랐다."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카를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나를 보았다. 가끔 카를이 얼굴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꼭 그랬다. 한숨을 내쉬는 나를 보면서, 카를의 웃음이 짙어졌다. 하지만 너무 반반한 얼굴이라 저렇게 웃을 때면 내가 도리어 말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였다."어떨 것 같습니까.""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알겠지.""내가 당신에게 해가 갈 일을 할 리 없지 않습니까. 알 때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전혀 모르겠는데요."내가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카를을 보자, 카를은 태연하게 시선을 피해 돌아섰다. 그리고 나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저택 깊숙히 들어섰다. 나는 카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카를이 딱 손바닥만해졌을 때 발걸음을 떼었다. 카를은 다리 길이도 길어서, 그가 천천히 걷는 걸음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걸음이 빨라져 그에게 닿을 때쯤에는 결국 반쯤 뛰고 있었다."천천히 오셔도 됐는데요. 어차피 긴 여정이 될 것이었으니.""지금 겁주는 건가요.""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하니까요. 아는 것과 깨우치는 건 다른 문제고."카를은 걸음을 천천히 늦추었다. 덕분에 나란히 걸을 수 있었다. 카를의 의중을 살피려 얼굴을 열심히 보았지만, 별달리 읽어낼 수 있는게 없었다."나에게 재능이 있다면서요."나란히 걸으며 시선을 올려다보느라 뻐근해진 목으로 자꾸만 신경이 쏠렸다. 아예 뒷목에 손을 얹고 걷는데, 카를이 손을 내 뒷목으로 가져오더니, 허공에서 무언가 복잡한 손동작을 해보였다. 그 다음 순간 경직된 목이 풀린 것 같았다."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배우게 될 겁니다. 얼마 안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어림짐작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내가 누군가를 가르쳐본 것 같습니까."카를은 지난번에 내가 그를 찾았던 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때는 카를을 찾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살펴보고 싶었다. 언뜻 보았을 때는 평범해보이지만 비범한 구석이 있는 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책과, 나무로 만들어진 근사한 독서대, 이유를 모르게 깊이 패인 벽에, 바닥에는 복잡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벽에 패인 자국을 살펴보니, 깔끔하고 둥근 모양새가 공이 박혔던 것 같았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자국이 몰린 게 아니라 벽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는 게 인상깊었다. 내가 움푹 패인 부분의 가장자리를 더듬어보자, 카를이 내 옆으로 다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마법이 늘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카를만큼 마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수도를 뒤져도 찾기 힘들 터였다. 그런데 그런 카를도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내가 하면 이 방쯤은 날릴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내가 카를의 말대로 마법에 재능이 있다면."당신이 하는 데도요?""힘의 조절 문제라서요. 이 공간 자체에 보호 마법을 둘러놔서 그나마 저정도로 그친 겁니다.""대체 뭘 노린 거예요."턱을 쓸어내리며 벽의 흔적을 살피던 카를이 고개를 저었다. 마치 제 방의 벽을 처음 보는 것인양 눈으로 찬찬히 살피던 카를이 나를 돌아보았다. 옆으로 슬쩍 보는 각도에서도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약간의 걱정이 훌륭한 요리 위에 향신료를 끼얹은 듯 저 얼굴에 풍미를 더하는 것 같았다."그러니까, 이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려면 당신의 마법이랑 겨뤄야한다는, 그런건가요.""이 방 밖으로까지 힘이 번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거니까."적어도 이 집을 아주 망가뜨려서 내가 감당못할 빚을 계약서에 얹을 일은 없을테니 다행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책장을 넘겨보려는데, 카를이 딱 한 마디를 덧붙였다."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야 겠죠.""내가 이 집을 부술 정도로 강할까요?"카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 옆으로 와서 같이 책장을 들춰보았다. 그리고 창 밖을 한동안 내다보았다."집 전체에 보호막을 씌워놓겠습니다. 늦어도 이틀 안에는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내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인물이었나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 사이 카를은 내 앞에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호신용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두께의 책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왔다."이게 내 숙제에요?""그렇습니다. 먼저 원리를 알아야 이 집이 무사할테니까요.""이 집을 무사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다는 거 아니었어요?""당신의 성취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할 수도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나를 높게 사는 건 감사한데, 대강 설명부터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다 읽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허탈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약간 생길 것 같고.""마법이라는 건 결국 힘의 흐름입니다. 당신은, 힘을 모으는 그릇이자 통로같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어 사용할지 원리를 익히는 게 시작입니다."처음 들어보는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려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아는 마법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기도 했고."주문이니, 시전이니 하는 건요.""그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인겁니다. 당신에게는 불필요한 일겁니다."이제야 카를이 그렇게 빨리 마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을, 그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뒤쫓아가려니 그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했던 거였다."당신처럼요?""어쩌면 나보다도."카를에게 자연히 시선이 갔다.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짙게 가라앉은 푸른 눈이 설득력 있어 보였다. 확실한 미래가 내 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한다면, 몇 일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아니 몇 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내가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나요.""일단 해보고 나서 생각할 일입니다."카를의 말이 맞아서, 나는 불평하는 대신 책을 펴들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참 편리한 일이다. 다만, 내가 읽을 글의 난이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졌다. 일상적인 편지를 대필하거나, 읽어주는 일은 쉬웠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에 관해 읽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카를은 꽤나 성실히 집 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카를이 준 마법서를 열심히 탐독했는데, 분명 실용서로 쓰여진 것인데도 문장이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당신 안에 흐르는 기운이 어디로 가는지 느껴라.' 라든지, '자연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깨달아라' 와 같은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느낄 수는 있어도, 그걸 힘이나 기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덕분에 카를이 열심히 저택의 무언가를 바꾸어나가는 동안, 나는 내내 책을 읽으면서 걸어다니는 바람에 어딘가에 늘 부딪혔다."여기가 아닙니다."카를이 나를 붙잡아 경로를 수정하는 날도 많았다. 피두스가 다시 나를 졸졸 따라붙는게 카를이 지시를 내린 것 같았다."당신은 마법을 좀 쓸 줄 아나요?"고양이, 아니 늑대 손이라도 빌려볼까 했는데, 피두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 두꺼운 책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같은 문장의 변주일 뿐이라, 나는 한숨만 쉬었다. 피두스는 미안한 기색을 표했다."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래된 마법 덕이지만..""됐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죠."허공에 그려지는 카를의 얼굴에 속으로 욕지거리를 실컷 날렸다. 그렇다고 해방되는 건 아니었지만.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 속에서 문장들이 맴도는 바람에, 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기운이라는 친구와 춤을 추었다."잘 되어 갑니까."식탁 앞에서도 내가 책을 붙들고 있자, 카를이 지긋이 나를 보다가 말했다. 나는 이쯤 되자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에 나를 재능 운운하며 끌어들인 카를에게 잔뜩 화가 나 있어서, 대답이 곱게 나가지 않았다."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유감이군요. 오늘 저녁은 특별히 당신이 좋아하는 것 뿐인데요."속을 통통하게 채운 칠면조의 뱃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입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다. 자연히 입맛이 뚝 떨어졌다."저녁은 먹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다고 특별히 답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그런 말을 할 바에야, 도와주는 편이 나을텐데요.""다행히 보수 작업이 끝나서, 오늘부터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나는 그 즉시 책을 덮어 식탁 밑에 내려놓았다. 식탁 앞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음식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운 법이었다.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올리려는데, 카를이 초를 쳤다."문제는, 아무래도 오늘 손님이 올 것 같습니다.""그러다가 내가 관 짤 때쯤 도와줄 수 있겠네요.""다행히도, 그건 나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나는 전투적으로 칠면조를 썰었다. 붉은 나무열매가 칼날에 짓눌려 터졌다. 야생 소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나는 카를을 노려보았다. 내 칼날 아래 형편없이 조각나고 있는 칠면조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추긍을 해야 했다."그 사람이 언제 오는데요.""글쎄요. 저녁쯤. 예고를 하고 오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친절하게 경고를 해줬군요."카를이 쪽지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기에, 긴 메시지 같지는 않았다. 그를 찾아올 손님은 누구일까."제가 아는 사람인가요?""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혹시 모르죠. 지난 번에 방문한 사람같은..."카를은 그 길로 입을 닫았다. 아무래도 마탑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올 모양이었다. 지난 번에는 그가 꽤나 강경하게 거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올 것을 기다리기 까지 하는 것을 보니 놀라웠다."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네요?""...성가시게 구니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 전에 손을 써두는 편이 나아서."방금 카를이 우리라고 한 것인가. 분명 며칠 전까지는 존재도 몰랐는데, 우리까지 격상한 것을 보면 감격스러웠다. 아무래도 계약서 조항 수정이 생각보다 더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그가 생각보다 내 안위를 더 걱정한다는 것을 깨닫자, 조금 더 과감해질 수 있었다. 계약서 상 을의 말에도, 카를은 눈썹 한 번 깜빡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덧붙이기 까지 했다."분부대로."식사가 끝나자 그는 손님을 맞이하러 갔으나, 내가 다시 또 엿듣지말아야할 이유가 없었다. 어쩌면, 이건 그의 말대로 '우리'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르니, 꼭 알아야 했다. 나는 이번에는 신발을 벗어들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숨을 죽이고, 심장이 최대한 느리게 뛰도록 마음을 가라앉혔다. 삼촌이 내게 뱀 닮은 덩굴을 던질 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상황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당신이 저지른...여왕...선대의 계약...""불필요합니다"카를의 목소리가 꽤나 단호하게 울려퍼졌다. 대신 이번에는 손님의 목소리가 더 가늘게 들렸다. 긴 침묵이 이어지고, 숨소리가 무거워질 무렵, 목소리가 다시 간헐적으로 이어졌다."...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같은 것입니다."카를의 발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려 어둠으로 숨어들기 직전, 문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방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두꺼운 망토를 눌러 쓴 남자가 보였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자, 카를이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들었으면 알겠지만, 우리, 사막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이게 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거구나. 새삼스레 선조들의 지혜를 느끼며, 나는 한동안 카를을 말없이 올려다 보았다."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다 들은 것 아니었습니까?"카를이 한 발자국 내게 더 다가왔다.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의 거리였다. 카를이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덕분에 숨결이 닿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묘한 아쉬움과 함께, 카를의 말이 이어졌다."사막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왕이 원하고 있습니다.""여왕 폐하께서, 뭘 원하시는데요?"아무리 힘 있는 마법사라지만,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다. 혹시나 피두스가 듣고 다음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전하려면 어쩌려고 말을 저렇게 하나. 하지만 카를의 시선에는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왕 폐하의 명이라니,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도 내가 굳이 거처를 옮겨가며 그곳까지 향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당신과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는 건 아니실 테고..."내 눈이 가늘어지자, 카를의 눈도 덩달아 가늘어졌다. 한동안 기울어진 고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왜 이 남자 곁에 붙어 있기로 했는지 생각났다. 용의 자취를 쫓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다. 그렇다면, 여왕 폐하도 용을 쫓아 자신의 아버지를 찾으려는 것일까."선황 폐하를 찾으러 가신대요?""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요.""하지만, 전설일 뿐이잖아요.""당신, 용의 존재를 믿는 것 아니었습니까?"마법사도 있는 마당에, 어딘가에 용과 같은 신비스러운 존재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굳이 용이 정성 들여 폐하를 납치해 갔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다. 용과 같은 존재가, 굳이 저녁으로 뭘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나 같은 인간사에 개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용이 정말 폐하를 잡아갔어요?""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떻게 알아요. 용이랑 말이라도 해봤어요?"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것 같지만, 타당성 있는 추론이었다. 용에 관해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한 번쯤은 용을 찾으러 나섰을지도 몰랐다. 내 합리화가 조금 부끄러워질 즈음, 카를이 고개를 저었다."떠나야 할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고 생각합시다.""마법은, 언제 가르쳐줄 건데요."내 말에 카를이 우뚝 멈추어 섰다. 잠시 미동도 없이 얼어있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지금 설마 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건가. 여태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말로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는, 정작 본인은 잊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설마, 잊고 있던 것 아니겠죠?"진한 침묵이 이어졌다. 미모로도 용서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탐스러운 검은 머리채를 딱 한 번만 경쾌하게 내리칠 수는 없을까. 진지한 충동에 사로잡혀 나도 모르게 카를 뒤로 바짝 다가간 순간, 카를과 눈이 마주쳤다."절대로 해할 의도는 없었어요."카를은 높이 치켜든 내 손을 바라보고 짧게 한숨을 쉬었다. 카를이 마른세수를 두어 번 이어 하는 사이에 슬쩍 손을 뒤로 감추었다."...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하지만, 마법은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성에 보호 마법까지 열심히 걸었잖아요.""...이곳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는 일일테니까요."지금 저 사람, 자기 집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말을 한 건가. 아니, 그보다, 애초에 내가 무언가를 부술 거라고 확신하는 건가. 허리에 손을 얹고 나의 황당함을 담아 노려보자니, 카를이 양손을 들어 항복을 표했다."처음에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당신도 그랬어요?""저는, 타고났으니까요."저 얼굴이 아니었으면, 명치를 딱 한 대만 쿡 찔러주고 싶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카를의 미소가 짙어지자, 주먹 쥔 손에 절로 힘이 풀렸다."하지만, 말했듯이 당신이 지닌 잠재력은 나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미남이 늘어놓는 공치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에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그래도, 정리할 시간은 줘야죠.""하루면 충분하겠습니까?""성격이 왜 그렇게 급해요?""당신 일이라면,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카를의 눈빛이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나는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조금 억울했다. 내가 일으킨 소동이라고 해봐야,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오래된 책 하나 훔치고, 비밀 공간을 까발리고 이 집의 식량을 축낸 것뿐인데. 물론, 그걸 다 청구하면 우리 집 살림살이가 곤란해지겠지만."하루라는 게 지금부터 정확하게 24시간인가요?""뭐, 그렇다고 합시다."일단, 혹시 모르니 짐부터 챙겨놓고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 고민할 여유 따위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집에 나만큼이나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든 것이었다. 어떤 의미로는 마탑에서 나온 사람보다도 지독했다. 창문 너머로 한스 놈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보였다."어이, 비아테, 나왔다! 잠깐 나와봐."손까지 휘저으면서 성벽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카를이 성벽에 또 무언가 해놨다고 했으니 자칫하다가는 저 바보가 다칠지도 몰랐다."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내려갈게!"복도의 장식품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는 카를과 피두스를 지나쳐 달려 나갔다. 카를이 뒤에서 무언가 소리치는 게 느껴졌지만, 지금 저 바보의 생명이 위중했다."이따가 다 설명할게요! 어디 도망치려는 거 아니에요!"그 말에 귀신같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내가 도망갈까 봐 걱정됐던 모양이었다. 카를은 어떤 의미로는 참 쉬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거기도 했고. 반면에, 한스는 단순한 듯하면서도 복잡했다. 대체 지난번의 고난을 겪고 난 뒤에도 또다시 찾아올 이유는 무엇인가.한스는 한 번 웃어 보였으나,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을에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한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한스의 표정은 또다시 그 한순간만 밝아졌다."무슨 일이야.""그래, 나도 다시 보니 반갑다.""전혀 반가운 표정이 아닌데."내 말에 한스가 입꼬리를 애써 끌어올렸다. 카를과 달리 그 몰골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다. 저택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적선해줘야 할 것 같은 꼴이었다."할 말 있어서 찾아온 것 아니었어?""그래, 그건 맞지.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언젠가는. 우리 그때 진하게 작별 인사한 거 아니었냐.""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장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너.""대체 왜?"그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줬는데도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니. 물론, 한스가 내게 해준 일이 있으니 홀대할 사람은 아니기는 했다. 하지만, 다시 돌릴 수 없는 일에 관해 길게 설명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영주님이, 널 찾아.""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되잖아.""설명해 드렸지.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처를 옮겼으니,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하셨어."그나마 이 마을에서 돈 될 사람들이 죄다 거금 한 번 내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버렸으니, 돈 긁어모으는 데 혈안이 된 건 이해가 됐다. 문제는, 그 방식이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식이라는 거다."얼마나 내야 한다는 건데?""금화 하나는 내놔야 할 거래."내 수중에 금화가 있기는 했다. 문제는, 그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게 남긴 가장 귀한 물건이라는 것이었다."...금화 하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애들보다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한스의 시선이 신발 끝을 향했다. 나는 착잡한 마음에 괜히 신발로 땅을 골랐다. 씨를 심기에 적당한 깊이가 될 무렵, 한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걔들은 자진 신고했고, 너는 아니니까.""그러고 보니, 그것도 수상해. 대체 누가 내가 없어진 걸 알았지? 너랑 너희 어머니야 내가 거기 없는 걸 아시지만...""아, 아이카 할아범이, 네가 요즘 안 보인다길래."아이카 할아범이야 동네 최고참으로 구석구석 살피는 게 일이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얘는 소꿉친구가 돼서 거짓말 하나 못 해주는 건지, 참으로 그 쓸모가 의심스러웠다."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아니, 물론, 나는 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잘 말씀을 드렸는데...""나 친구 없잖아.""네가 왜 친구가 없어! 어? 나도 있고. 또..."이 자식은 지가 먼저 내게 새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경악했으면서, 왜 귀청 떨어지게 소리는 지르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운을 띄웠으면 끝을 맺든지, 말을 하다 마는 건 또 뭔가. 손 안 씻은 사람과 악수한 것 같은 찝찝함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러자 한스의 못난 입술이 마중을 나왔다."과히 부담스러우니 그 얼굴을 치워주련.""나도 돌아서면 너 정말 친구 없다.""새로운 친구 사귀었어. 너랑 달리 어머니랑 아버지 찾으러 같이 가준단다.""뭐? 너 그럼 영주님께...""몰라, 시끄러워. 목청만 커가지고는, 나 잘 있는 거 봤으면 돌아가 어서."당연히 영주님이 아시기 전에 자리를 비워야지, 그런 당연한 소리를 말로 굳이 해야 아는 건가. 19년의 우정이 참으로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이 마을을 잠시 떠나있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빨리 말해봐야 카를이 의기양양해지는 꼴밖에 더 보겠는가. 카를은 조금 쑥스러운 듯 멋쩍게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웠기에,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알리지는 않기로 했다.짐도 손 가는 대로 싸 놓아서 남은 시간이 길었다. 홀로 보는 마법서의 진도는 더뎠고,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 이럴 때는 내 고민과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 게 특효약이었다. 다행인 건 이 집은 돈 만큼이나 서책도 넘쳤다. 서재에 들어가자 오래 묵은 종이 향기가 풍겼다. 바짝 마른 햇볕의 냄새를 오래 묵힌 고소한 냄새였다.하늘을 올려다봐도 책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봐도 온통 책이 있었다. 책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만큼의 책을 감당할 만한 공간이 있다는 게 더 대단했다. 모든 수집가의 꿈은 넓은 집이라는데, 이만큼을 책으로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딱 요정도 공간에라도 살고 싶었다. 지금 머무는 내방이 여기 반은 되니, 꿈속에 사는 셈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온전히 내 집은 아니니까."책이 더럽게 많다."꿈이 먼저 도둑발로 찾아오고, 나는 준비도 없이 손님을 맞았다. 그런데 금새 또 이별이라니. 책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지나치다 보니, 라케시스 대륙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손에 들어왔다. 애써 앞선 일에 신경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막지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에 멈춰 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헤르니아의 사막은 다섯 개의 꽃잎을 가진 꽃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메마른 꽃'이라고 불렸다. 아직도 소수민족이 제각기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곳이었다. 상단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려져 있기는 하다고 들었지만, 거기까지 들어가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쾌쾌한 먼지 냄새를 기대하고 펼쳐 든 책은, 낡았기는 했지만, 보존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책장의 가장자리가 닳아 있는 것으로 보아 자주 펼쳐 본 책 같았다. 카를이 펼쳐본 것일까. 그렇다면 사막에 가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자취에 남은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힘을 쓸 수 있는 자들뿐.."카를이 말했다. 마법은 힘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힘이 지나가는 통로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이 글귀가 말하는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은 어쩌면 마법사가 아닐까. 그러니, 힘을 오롯이 빌려올 수 있는 자들은 다 사막에 숨은 것이 아닐까. 카를이 그토록 사막으로 가고자 했던 게, 여왕 폐하의 명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찰나였다.잠깐 스치는 생각을 붙든 것이 내 실수였다. 손에 쥔 것 같았는데 금세 머릿속을 파고들어 메아리쳐 울렸다. 결국 이 모든 모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가족조차 나를 걱정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별한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다.하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다. 그런데 겨우 몇 주 알고 지냈을 뿐인 카를은, 꼭 나에게 짜 맞춰진 사람 같아서 이상했다. 위로가 필요한 지금 같은 기분이라면, 잠시 믿어보고 싶기도 했다.그 길로 달려가 카를의 문을 두드린 것은 생각의 흐름 같은 것이었다. 마법이 자연으로부터 비롯되어 사람에게 전해지는 흐름이라면, 이건 내 머릿속에서 시작되어 카를의 방문까지 전해지는 울림이었다."...여기 있습니다.""혹시, 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그 소리에 기대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 들면서도, 동시에 안도가 찾아왔다.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뒤섞여진 감정을 끌어안고, 카를에게 인사를 건넸다."그럴 줄 알았어요. 다행이야.""당신 때문이기도 합니다.""방금 그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해진 상태라, 취약하거든요."카를은 그 길로 입을 다물었다. 입꼬리가 움직이는 것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로 들려오지는 않았다. 나도 더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카를의 손이 훅, 내 머리 위로 다가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카를이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말아 쥐었다."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믿기 힘드시겠죠?""믿어도 방금 그건 불쾌할걸요."한스놈이 어디서 이상한 걸 보고 와서 종종 지 덩치를 자랑하며 내 머리를 쓸어내렸는데, 그때마다 십 년 전으로 소환된 것 같은 불쾌감에 휩싸였다. 카를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귀엽긴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다행히 카를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참고하겠습니다."카를이 순순히 내 말을 받아들이자 괜히 멋쩍어져서 헛기침을 두어 번했다. 하지만 카를의 시선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았다. 슬쩍 피두스가 있나 돌아보고, 몇 발자국 떨어져 봐도 자꾸만 눈길이 가는 모양이었다."..자꾸 왜 그렇게 봐요?""더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그제야 잊고 있었던 방문의 이유가 다시 떠올랐다. 서재에서 읽었던 구절을 찬찬히 떠올렸다. 내 추측이 맞는지 확신을 더 할 필요가 있었다."사막에 마법사들의 후손이 사는 건가요?""그 사람들을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마법사들은, 그저 힘의 부스러기를 한데 모아 사용하는 자들이니 어떻게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습니까."한마디로 말해서, 급이 다르다는 말이었다. 본질적으로는 이 세계에서 힘을 빌려다가 사용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뭘 저렇게 꼬아서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카를의 마탑을 향한 개인적인 반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았다."....마법사들이 그렇게 싫어요?""그럼 그 능력도 안 되면서 오만방자한 자들이 좋습니까?"시종일관 차분하게 내 속을 긁었던 카를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 눈썹산이 같이 높아지자 한풀 꺾인 기세였지만, 얼굴에 드러난 분노는 다 숨길 수 없었다. 카를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는 마른세수로 얼굴을 갈무리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피로가 자리했다."안 좋게 얽혔던 거죠.""안 좋고 말 것도 없습니다. 저와 관련이 없는 인간들이니까요.""사막에 사는 마법사들, 아니다, 그, 뭐라고 불러야 하죠?"카를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손깍지를 끼고 깊은 눈으로 벽 한구석을 노려보다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느릿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원래는 마법사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맞지만...편의상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자들, 이라고 합시다.""아무튼, 그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은 당신과 관련이 있어요?"내 말을 듣자 카를이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달싹이는 입술이 그려내는 움직임이 명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그래서 그편이 더 시선을 붙들어 놓는 것 같았다. 카를의 생각이 길어질수록, 그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짙은 속눈썹이 푸른 눈 위에 드리우는 그늘, 길고 단단하게 뻗은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자, 카를이 나직이 읊조리기 시작했다."어떤 의미로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결의 힘이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나만큼 뛰어나지는 못합니다.""마지막 말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사실입니다."자신감이 넘칠 만한 실력이었긴 했다. 따로 덧붙일 말은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카를이 말을 이었다."당신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용의 흔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일깨워준다는 건?""당신이 힘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내 힘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아직 마탑의 사람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겪어보면 의외로 나쁘지 않은 직장동료일 수도 있었고. 그럼 가족들도 더이상 밖으로 나돌지 않게 될 거고, 혹여나, 최악의 경우에 정말 혼자가 된다고 해도 내 한 몸 부양하고 살 수도 있었다."지금 당장 가도 될 것 같아요.""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기도 했고.""...무슨?"카를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자연 현상을 마주한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푸른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한동안 즐기고 있자니, 카를이 입술을 비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얌전히 실토할 밖에 없었다."영주님이 저에게 벌금 물린대요.""내가 있는 한, 영주는 당신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건드립니다."카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카를이 언제까지고 나랑 같이 있을지 모르는 일인 데다가, 영주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끈질긴 사람이었다. 그 밑으로 세금 징수를 업으로 하는 부하가 몇인데 나하나 못 잡아내겠는가. 한 마디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동아줄을 잡고 버틸 수는 없었다. 나홀로 설 힘을 가져야 했다."....그걸로는 부족해요.""절 조금 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만.""언젠가는 제집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카를이 무언가 말을 얹으려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물었다. 한동안 테이블을 두드리며 무게를 잡는 카를 덕분에 쭈뼛 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곁눈질로 고뇌하는 조각상 같은 얼굴을 구경하는 맛은 있었지만,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즈음에 카를이 고개를 끄덕였다."좋습니다. 사흘 안에 짐 싸서 떠납시다.""저는 짐 다 쌌는데요.""제 짐을 싸야 합니다."이렇게 큰 집에서 짐을 싸려면 삼 일쯤 걸린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숙연한 표정으로 애도를 표했다. 아무래도, 피두스가 고생해야 할 것 같았다. 도와줄까 싶다가도, 내 전적을 생각하면 물건을 다른 의미로 정리하게 될 것 같아 망설이게 됐다. 내 마음을 읽었는지, 카를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혹여나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내가 무작정 힘만 쓰는 사람인 줄 알아요?"괜히 허리춤의 칼을 만지작거리니, 카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딱히 휘두를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단단히 오해를 산 모양이었다."아니 그렇다고 칼을 쓰겠다는 말은 아닌데...""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는 당신이 칼을 휘두를 만한 공간도 없고.""집도 넓구만..."카를이 책상 위에 책 하나를 내 앞으로 쓱 밀었다. 표지를 보니 우리 헤르니아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 사막과도, 마법과도 관계가 없어 보였다. 아무래도 집히는 대로 쓱 민 것 같았다."읽으면서 사막에 관해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전혀 사막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데...""헤르니아가 사막과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부족이 우리에게 우호적인지 알아보고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역사책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사막에 관한 책을 주면 몰라."카를이 입을 다물었고, 내 미소는 짙어졌다. 카를은 마른세수 몇 번을 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좀 더 지켜볼까 했지만, 카를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저 얼굴에 금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피두스 불러줄까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피두스는 이곳을 지킬 겁니다."내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감시역으로 보낼 정도로 피두스를 믿으니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집을 지키라고 할 만했다. 그렇게 충실한 부하는 어디서 얻는 건지, 부럽기도 했다.그러고 보니, 피두스가 아까부터 보이지 않았다. 카를이 짐 싸는 동안 나는 피두스나 찾아서 집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정은 내렸고,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가서 채비해야겠다. 그런데, 나가려는 나를 카를이 불러 세웠다."비아테."카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니, 별다른 말이 없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몸을 돌리니 카를이 그제야 말했다."그리고 아까...당신을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아까 민망해서 아무 책이나 건넨 게 신경 쓰였나 보다. 돌아서면서 잊은 일이었는데, 세심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조금은 귀엽게 보이기도 했다. 돌아서 본 얼굴이 커다란 손 너머에 숨어 있는 게, 손가락 사이로 꿈틀거리는 입꼬리가 눈에 들어오자 웃음이 터졌다. 내 웃음소리를 들은 카를이 양손을 들어 얼굴을 꼼꼼히 가렸다. 검은 머리칼만 삐죽 솟아 있는 게, 더 놀렸다가는 아래층으로 숨어들 것 같았다. 좀 더 뜸을 들이려 했지만, 인심 한 번 쓰기로 했다."그럼 나 이 책 안 읽어도 되는 거죠."헤르니아의 역사책을 도로 책상에 올려놔 주자, 카를이 재빨리 책을 수거했다. 단단한 껍질 너머로 몸을 숨긴 달팽이 같았다. 단단한 골격 너머로 은근 여린 속을 숨긴 것이 딱 맞았다."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그럼 가져가서 볼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카를의 귓가가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피두스를 찾아 나섰다. 복도를 이리저리 둘러봐도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다."피두스, 어디 있어?"평소에는 부르지 않아도 어느새 뒤를 졸졸 따라왔는데, 찾으려니 안 보였다. 동네 강아지 똥도 약에 쓰려면 안 보인다더니, 역시 조상들의 말씀이 괜히 전해지는 게 아니었다. 이 못된 강아지를 올바른 길로 타일러 보고자 목소리를 내리 깔았다."장난치지 말고 나와. 나 이번에는 진지해."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니, 그동안 정이 많이 든 기묘한 생명체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다. 나의 집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침대 밑과 이불 속, 천장 구석까지 뒤졌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식당을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직감했다. 얘는 나랑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 이 저택에 없는 거다.카를의 방문을 두드렸다.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카를이 문을 열어주었다. 카를은 부끄러움을 잘 갈무리한 듯,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조금 크게 떠진 눈이 의아함을 품고 있었지만, 피두스의 실종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푸른 눈 속에 조금 당황한 표정의 내가 보였기 때문이다."피두스가 보이지 않아요.""...그게 무슨?"카를의 미간이 일그러지며 눈이 크게 떠졌다. 물론, 그모습도 꽤나 그림같기는 했지만, 카를이 당황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까 한 말을 생각하면 카를은 당연히 피두스의 행방을 알리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니. 카를의 당황에 전염된 나의 눈과 입도 커졌다. 그렇게 카를의 얼굴이 다시 또 무너져 내렸다. 채 가라앉지 못한 머리칼이 붕 떠서 닭 쫓던 강아지를 닮아 보였다. 카를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처음 봤다. 튜닉 소매를 걷어 올려 단단한 팔뚝이 드러나 있었다. 구석구석 힘줄이 솟은 모양을 찬찬히 살펴보니, 역시 가만히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닌듯 했다. 하지만, 카를은 내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서둘러 소매를 풀어 내렸다. 괜히 아쉬운 입맛을 다시게 된 것은 본능이었다."지금 뭘 그렇게 보시는, 아니, 그전에, 피두스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까?""네, 카를이 어디 보낸 건가요?"당황한 모양새를 볼 때 아닌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역시나 고개를 저었다. 오늘 카를이 그림 같은 얼굴을 손 뒤로 숨길 일이 많았다. 이제는 익숙한 자세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자니, 가라앉은 목소리가 이어졌다."어딜 보낸 일이 없습니다. 혹시...""혹시?"피두스는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니까, 무언가 더 감춘 것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다. 알고 보면 이 저택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는 피두스 일지도 모르고. 순간 내가 피두스에게 했던 과오가 스쳐 지나갔다. 강아지 취급이라든가, 카를을 소환하며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이라든가. 하지만, 카를도 넓은 의미에서 공범이니까, 혼자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동조를 구하며 카를을 은근히 바라보니, 카를이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금, 나를 피한건가?"갑자기 왜 이렇게 거리 둬요?""방금, 등 뒤로 섬찟한 감각이 들었습니다."가끔 마법이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얌전히 이곳에 발붙이고 있는 것을 보니 다행히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안도의 한숨은 속으로 삼키며 태연하게 답했다."에이, 피두스가 어디서 곤란한 일을 당할까 걱정되는 거겠죠."마법사라서인지 촉도 발달한 것 같았다. 적반하장으로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카를을 노려보고 있으니, 카를이 연거푸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그런게 아니라, 카를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그럽니다.""그럼요?""제, 스승이라고 해야 할까요.""카를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태어날 때부터 마법을 깨치고 물을 가르며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을 것 같은 데 의외였다. 눈만 껌뻑이며 바라보고 있자니, 카를이 드디어 제 머리 위 까치집을 정돈했다."가지고 있는 것과 자유자재로 힘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니까요. 당신을 일깨우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가지고 있다고요? 분명, 그때 마법사는 잠시 힘을 빌려 사용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마법사는 잠시 물을 담아두는 그릇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 물로 갈증을 채울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도 있고, 바닥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힘을 사용할지는, 마법사의 능력과 선택에 달린 문제였다. 힘을 키운다는 것은,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지, 힘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게 아니었다. 내가 책과 카를의 말로 이해한 바로는 그랬다."그 말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나는 결이 다른 존재입니다.""그럼 나는요?"손으로 나 자신을 가리키자 카를은 잠시 말을 골랐다. 민망해진 손을 거두어들여 팔짱을 낀 채 카를을 오래 노려보았다. 내 시선이 자신에게 오래 붙들려 있자 카를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내가 자리를 뜨려던 찰나, 카를이 나직이 말을 이었다."당신은 나와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자세히 설명해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마법사와도 다릅니다. 내가 당신을 택한 이유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얼핏 카를이 내가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붙들어놨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분명 그것 말고도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았다. 설마 나의 지성과 과감함에 반한 것일까? 오래 바라보면 저렇게 부끄러움을 표하는 게 내 가설을 뒷받침해주었다. 문틀에 기대어 카를을 그윽하게 바라보자, 카를이 황급히 몸을 돌렸다. 나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카를, 혹시...""저는 저택에 강화와 보호 마법을 더 걸어놔야겠습니다."저렇게 본인이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하는데, 굳이 캐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이미 창문 하나 깨 먹은 것으로 올해 치의 무례는 다 한 것도 같았고. 덫에 걸린 어린 짐승을 풀어주듯, 황급히 달아나는 카를을 너른 아량으로 용서해주었다. 서재에서 힘을 모으는 방법이라도 궁리해야겠다 싶었기도 했다.아무래도, 세상이 내가 마법을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았다. 아니라면, 내가 공부해보려는 마음을 먹을 때마다 번번이 방해꾼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 카를 하나만 믿고 세상에 역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막 책을 폈는데 오늘치 공부 끝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삼촌을 만난 심정으로, 오늘의 불청객이자 단골 한스를 맞았다.그를 반갑게 문전박대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 먼 길 와준 손님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집까지 고이 배웅해드려야겠다. 괜히 얼쩡거리다가 영주님께 내 행방을 들킬지 모르니 이곳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다정한 인사말도 건네야 했다."또 무슨 일이야, 친구야?""난 왜 네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지?""그럼 어떻게 해줘야 해? 너도 취향 참..."다정하게 맞아줘도 싫다는 게 수상했다. 장작과 멧돼지를 짊어지느라 꽤나 넓어진 어깨를 흠모하는 눈 삔 여자애들이 제법 됐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게 이상하기도 했고. 분명, 취향이 보통은 아닐지도 몰랐다. 저 환상을 채워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앞날이 걱정되는 한스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자니, 안도의 한숨을 쉰다."그래, 저게 내 친구 비아테지.""그래, 알았으면 반갑고, 나가라.""아니, 내가 찾아온 건 이거 때문이 아니라.""그럼 뭔데?"마침 시야 귀퉁이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카를이 보였다. 단순히 마법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닌지,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는 모습이 제법 진지해 보였다. 눈이 마주치는가 싶더니, 이내 이쪽으로 왔다."집주인 오니까 그 전에 빨리 얘기해.""...너 정말 떠날 거야?"내게 다가오는 카를의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굳어가는 것이 보였다. 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더니 역효과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저건 나를 성벽 강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선포 같았다. 괜히 힘 빼기 싫은데, 눈에 띈 이상 모른 척하기도 쉽지 않고, 먼저 선공을 하는 편이 나았다."카를, 작업은 잘 돼 가요?""저 사람은 왜 자꾸 여기서 얼쩡거립니까?""마을 소식 전해주려고 온 거래요. 금방 갈 거예요."카를에게서 고개만 돌려 한스를 보았다. 열심히 얼굴 근육을 움직여 필사적으로 지금은 빨리 물러가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10년이 넘는 우정은 헛것이었다. 한스는 내 뜻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 도리어 얌전히 발톱을 숨긴 카를의 심기를 살살 거스르는 거겠지."비아테와 할 말이 있어서 온 겁니다. 잠깐 이야기도 못 합니까.""비아테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나는 필사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였으나, 카를에게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았다. 카를의 눈썹이 제멋대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벼 이삭을 헝클어놓는 것 같은 격렬한 움직임이었다. 덕턱에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 같았지만."내가 잘 이야기해서 돌려보낼테니까, 하던 일마저 하세요.""그러니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비아테는 더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지켜보고 있자니 가관이었다. 왜 내 기분을 두 사람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건지. 허리에 손이 올라갔다. 아니면 무언가를 부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카를이 소중하게 지켜내려는 성을 부수기도 그랬고, 그렇다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했다."둘 다 그만 해요. 아니면 내가 나갈까요?""....하던 일마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인간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면 부르십시오."카를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눈앞의 한스부터 해결해야 했다. 아무래도 영주님이 나를 찾는지도 몰랐다. 카를이 성을 빨리 정비해야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입 안이 바짝 말랐다. 곁눈질로 슬쩍 카를을 보니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마을까지 땅굴을 팔 기세였다. 애써 시선을 한스에게로 돌렸다. 당장 닥친 문제는 해결해야 했으니까."혹시, 영주님이 나를 급히 찾으시는 거야? 만약 그런 거라면, 몇 일 말미가 필요해. 아직 정리가 덜 돼서.""영주님은 계속 너를 찾지. 하지만, 여기 온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그럼 뭔데?""너, 꼭 가야겠어? 저 남자, 좀 수상한 것 같아서."우리 집으로 편지를 쏘아 보낼 때부터 카를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나를 돌아보는 얼굴에 묻은 의아함마저도 그린 듯했다. 저런 능력에 저런 얼굴은 반칙이었다. 한스 말대로, 여러모로 비범한 인물은 맞았다. 아무래도 내가 자서전을 쓰고 시간이 남으면 카를 전기도 한 번 써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카를의 비밀을 다 파헤치고 난 뒤에는 가능할 테니까."카를은 원래 이상했지.""저 남자 이름이 카를이야? 그게 아니라....""카를이 이상하다. 끝? 참신함이 영점이군.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나면 오도록 해. 물론, 그때쯤이면 나는 여기 없겠지만. ""아이카 할아범도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댔어.""응,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본 적이 있댔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잖아.""그건 또 무슨 소리야?"그러고 보니 내가 한스에게 이 불공정 계약의 실태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를이 단순히 내 친구라고만 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으니, 한껏 입꼬리를 치켜올린 채 태연함을 가장해 말을 건넸다."응, 어머니 아버지랑도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인연이 이어졌다는 거지."수상함을 눈치챈 한스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는 했지만, 태연히 웃는 얼굴에 무어라 더 추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았다. 한스는 한숨 한 번 내쉬더니 제 머리를 마구 흐트러트렸다. 하필 저 너머에 카를이 있는지라, 그다지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었다."아이카 할아범 말이, 저 사람 얼굴이 내가 본 그대로였다는데, 그래도 안 수상해?"카를이 나이가 제법 있는 것은 익히 짐작한 바였지만, 이건 좀 색달랐다. 그러니까, 카를이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동안인 모양이었다. 뭐, 그거야 뛰어난 마법사니까 제 얼굴의 시간도 멈추는 방법을 터득한 모양이거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다. 마법사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디게 늙는다고, 그들을 본 이들이 말했으니까."마법사거든, 그럼 이해되지 않아?""아이카 할아범은 저 사람을 이 마을이 아닌 곳에서 봤다고 했어.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에도 봤다고 했지. 그 두 번 모두 같은 얼굴이라고 했는데도?"마법사의 수명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힘을 사용한 대가는 컸고, 그들은 단지 젊게 죽을 뿐이었다. 마탑이 자꾸 여기까지 오는 이유도 아마 인력 부족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었다.그러다 문득, 아이카 할아범이 젊은 날 사막을 떠돌던 모험담을 이야기해주었던 것이 생각났다. 어쩌면, 카를이 사막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아이카 할아범을 만나야겠어. 하지만, 나는 여기를 혼자 나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카 할아범이 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하는데.""...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하루만 더 있어 줘. 그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그래, 일단은. 지금은 빨리 돌아가, 카를이 보고 있잖아."카를이 나를 보며 그림같이 웃었다. 아주 오래전 화가가 공들여 그려놓은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약간의 꺼림칙함을 뒤로 하며, 나는 한스의 등을 밀어냈다. 한스는 나를 몇 번이고 돌아보았지만, 이내 숲 너머로 사라졌다. 이제 내게 남은 임무는, 한스가 아이카 할아범을 데려올 테까지, 시간을 늦추는 것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카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